한국 속의 중국, 중국 속의 한국



8주차

장영덕 교수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K학술확산연구센터 K-ACADEMIC DIFFUSION RESEARCH CENTER

01 과목소개

본 과목은 한국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중국의 문화적인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중국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국의 문화적인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두 나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만큼 교류의 흔적을 찾아보는 것은 한중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본 과목을 통해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오랜 교류의 결과로 남아 있는 문화적인 요소를 확인함으로써 국가 간 교류에서 문화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며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02 키워드

- 중국과의 관계
- 고려사관
- 고려청자
- 한중교류
- 추사 김정희

03 주차별 구성

1주차	문화, 문화외교, 공공외교
2주차	한중관계와 문화교류의 조건
3주차	한국 속의 중국 – 유교문화
4주차	한국 속의 중국 – 차이나타운
5주차	한국 속의 중국 – 한자, 신앙, 차, 음식
6주차	중국 속의 한국 – 고대1
7주차	중국 속의 한국 – 고대2
8주차	중국 속의 한국 – 고려~조선
9주차	중국 속의 한국 - 근현대
10주차	중국 속의 한국 - 현대

04 강의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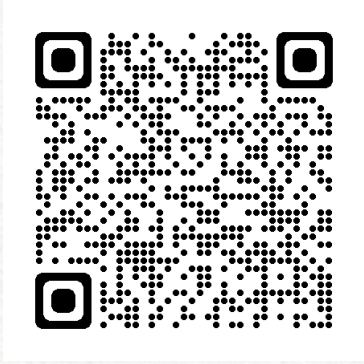
강의

퀴즈

8주차 영상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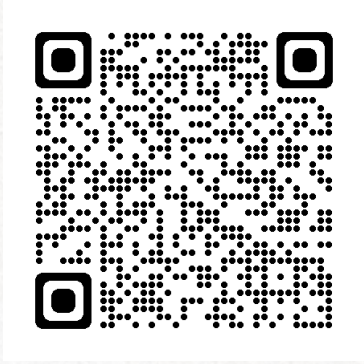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5차시



6차시

강의

중국 속의 한국 – 고려~조선

8-1 고려와 중국과의 관계

안녕하세요? 한국 속의 중국 그리고 중국 속의 한국을 강의하고 있는 장영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8주 차 수업으로 중국 속의 한국의 흔적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그중에서도 고려시대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중국과의 교류 속에서 남아있는 흔적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고려와 그리고 조선시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중국에 남아 있는 두 시대에서의 교류의 흔적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또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고려의 경우에는 외교 교류의 흔적과 함께 고려청자 같은 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조선의 경우에는 명나라와 그리고 청나라에 다녔던 사행단의 흔적 그리고 사행단의 흔적과 함께 인적 교류 흔적 등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을 통해서는 고려와 중국 그리고 조선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 그리고 조선과 중국의 교류가 남긴 흔적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고려와 조선시대 때 역사적 교류가 지금의 한중 교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중국에 남아 있는 한국의 고대 국가인 고구려와 신라의 흔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반도의 고대 국가들은 이미 1,500여 년 전부터 중국 대륙과의 빈번한 교류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곳곳에 이들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럼 다음으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때 중국과의 교류는 어떠했는지 먼저 알아보고 그 흔적들이 지금 어떻게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고려는 918년 왕건에 의해서 건국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 1392년에 이성계에 의해서 조선 왕조가 세워지기 전까지 474년간 존속했던 왕조입니다. 그리고 고려가 한반도에 존속했을 때 중국에서는 907년 당나라가 멸망을 한 이후에 오대십국이라는 매우 혼란한 시기를 거쳐서 송나라가 등장을 하고요. 이후 송나라가 멸망을 하고 원나라까지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는 주로 송나라 그리고 원나라와 교류를 하는데요. 이 고려 후기에는 원나라의 침입에 의해서 고려가 복속되기도 하고 그리고 원나라의 영향을 크게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고려와 이들 송나라 그리고 원나라와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먼저 고려와 송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려 시대 중국에서는 오대십국이라고 하는 혼란한 상황을 통일한 송나라가 있었고 북쪽에는 거란족과 여진족 그리고 몽골족 이런 북방 세력들이 자신의 세력들을 확대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고려와 송의 관계는 당시 중국 대륙의 동북쪽 지역에서 세력을 키우던 이들 거란족과 그리고 거란족의 요나라와 여진족의 금나라 등 이런 북방 세력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는데요. 고려와 송나라 모두 이들 북방 세력을 견제하고 있었고 이러한 공동의 목적이 두 나라의 교류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고려는 송나라와의 관계를 통해 요나라와 그리고 금나라, 이 두 나라를 견제하는 한편 송나라와의 무역을 통해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많은 이익을 취할 수가 있었고 송나라 역시도 북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고려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송나라의 수도 카이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카이펑이었던 북송 시기에는 거란족의 요나라가 북쪽을 차지하고 있었고 고려와 송나라 모두 요나라 견제라는 공통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라와의 관계에 따라 외교 관계를 끊었다가 회복하기를 반복하는 등 각자 실리 외교를 펼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고려는 요나라와의 세 차례 전쟁에서 송나라에 군사적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송나라는 요나라의 침공이 두려웠기 때문에 고려를 외면하였습니다. 이럴 때마다 두 나라의 외교 관계는 단절되기에 이르는데요. 물론 고려 역시 송나라가 군사적 도움을 요청했을 때 미온적으로 대응해야 했던 측면이 있어서 그런 시기 때는 외교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북송의 수도 카이펑이 거란족의 요나라를 밀어내고 북방 지역을 차지한 여진족의 금나라에 함락이 되면서 송나라는 수도를 지금의 항저우인 린안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고 또 수도를 옮기고 남송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송나라는 전기와 후기에 따라서 북송과 남송으로 구분을 하게 되죠. 이처럼 12세기 전반 여진족의 금나라 세력이 빠르게 팽창하는 가운데 고려와 송나라는 이런 외교적 그리고 군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송나라의 수도 카이펑이 금나라에 함락이 되면서 심지어 송나라의 두 황제가 금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요. 이후 세워진 이 남송 역시도 금나라 군대의 추격을 피해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남송의 조정은 고려의 군사적 협력을 제안하게 되는데요. 이때 고려는 남송의 지원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려 역시 당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던 금나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 남송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려의 태도는 남송 역시 고려 사신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두 나라의 외교 관계는 자연스럽게 단절이 되었고 또 공식적인 사신 왕래는 결국 중단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가 교류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정치적인 실리 외교라는 측면 외에도 경제적이고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교류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사이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중단되었다고 해서 양국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당시 지금의 서해상을 통해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은 끊이지 않고 있었고 이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상인들의 교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 조정은 외교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도 정식 사절을 파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상인들에게 조정의 문서 전달을 위임한다든지 혹은 구두로 지시를 내리는 방식 등을 통해서 자국의 정치적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소통 방식은 오히려 외교사절을 통해서 꺼내기 힘든 어려운 제안이나 요청을 하기에도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용하고 또 유연했던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경제적 이유만을 가지고 상대국을 찾는 것보다 외교적 임무를 띠고 방문했을 경우에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우가 훨씬 나았다는 점 그리고 공식적 외교 관계가 복원될 경우에 더 많은 교역의 기회를 기대할 수 있었다는 점 등에서 이러한 조정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송나라 상인들의 고려 왕래가 더욱 빈번하였는데요. 이『고려사』라고 하는 역사서의 기록을 보면 260여 년간 120여 회에 걸쳐서 5천여 명의 송나라 상인들이 고려를 찾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고려는 문화적으로 매우 융성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송나라 상인들에게 중요한 교역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나라의 정치적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도 상인들의 교역은 꾸준히 이어질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두 나라는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고려와 그리고 송나라 이후에 들어선 원나라와의 관계입니다. 13세기에 들어와서 고려의 대외 관계를 크게 변화시키는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바로 북쪽에서 유목민족으로 생활하던 몽골족이 새로운 강자로 부상을 한 것인데요. 1206년에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있던 몽골족을 통일한 잘 아실 겁니다. 이 칭기즈칸은 몽골 제국을 세우고 곧이어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까지 멸망을 시키고 중국 대륙을 정복한 뒤에 원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고려와 원나라의 외교 관계는 1219년에 처음 시작이 되는데요. 당시 몽골에 쫓기던 거란족이 1216년에 고려에 침입하였다가 1219년 고려와 몽골이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고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에 의해서 소탕된 것을 계기로 두 나라는 형제의 맹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고려와 원나라의 첫 외교 관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 몽골이 고려에 대해서 6가지 과도한 요구를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즉, 고려의 지배층 자제를 볼모로 삼는다는 것 그리고 고려의 호구 조사를 보고한다는 것 그리고 몽골군의 원정 시 고려가 군사적인 원조를 해야 된다는 것, 이와 함께 군량을 공급해야 하고 또 역참을 설치를 하고 다루가치, 즉 다루가치라고 한다는 것은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서 관리가 고려에 주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쉽게 응할 수 없는 요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고려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은 간섭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후 고려와 몽골의 관계는 더욱 악화됩니다.

특히 1225년에 저고요라고 하는 사신이 몽골 사신입니다. 몽골 사신이 공물을 요구하기 위해 고려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고려로 들어왔다가 몽골로 귀국하는 길에 지금의 압록강 근처에서 산적 떼한테 피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피살 사건을 계기로 고려와 몽골의 관계는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되죠. 이후 1231년에 몽골이 고려를 침입하게 되고 고려는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기면서까지 몽골과 치열하게 항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259년에 결국 고려는 몽골과 강화를 하게 되고 몽골은 1271년 원나라를 세우고 또 고려의 내정에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원나라의 간섭은 이후 약 100년간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원나라는 고려의 내정에 간섭하는 동안 왕족이나 귀족의 자제들을 볼모로 삼아서 원나라에 머물게 하였고 또 고려의 여인과 그리고 환관을 공물로 보내도록 합니다.



이렇게 원나라가 고려를 간섭하는 동안 고려의 지배계층을 비롯해서 공녀와 환관 등 많은 고려인들이 원나라로 유입이 되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와 같은 강제적인 인적 교류로 말미암아서 두 나라 간 문화 교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원나라 황실 내부 고위층에 고려인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을 통해 고려의 풍습이 자연스럽게 원나라에 전파가 되었고 원나라 사람들은 당시 세련되고 고급스러웠던 고려의 풍습과 문화를 따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원나라 사회에서 유행한 고려의 풍습을 당시 고려양이라고 불렀는데요. 얼마나 원나라 사회에 고려의 풍습이 유행했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나라 말기가 되면 고려의 여인이 많아지면서 원나라 사회에서는 의복과 신발 그리고 모자나 사용하는 기물들이 모두 고려를 따라 일시에 유행이 되었고 다양한 사료들을 통해 고려양에 대한 묘사를 지금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고려의 풍습과 문화가 원나라 사회 속에서 크게 유행했던 것이죠.

물론 원나라에서 고려로 귀국한 사람들은 당시 원나라의 문화를 고려 사회에 전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전파되고 또 고려 사회에 유행하게 된 몽골의 문화를 우리는 몽골풍이라고 부르는데요. 비록 원나라의 내정 간섭에 의한 강압적인 인적 교류였지만 이 두 나라의 인적 교류는 상호 문화 교류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측면이 물론 존재합니다. 이처럼 고려는 약 500년 동안 중국의 송나라 그리고 원나라와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할 수 있었고 특히 서로 다른 두 민족의 문화와 접촉을 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속의 한국 – 고려~조선

8-2 고려사관과 중국 내 고려 지명

오늘 이 시간에는 송나라 때 고려의 사신들이 머물렀던 고려 사관이라고 하는 곳과 그리고 지금 중국의 지명에 여전히 남아 있는 고려의 흔적 그리고 고려청자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 사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의 연해 지역인 저장성이라는 곳에는 닝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닝보라고 하는 도시는 영파라고 우리가 한자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닝보는 오늘날 세계적인 화물 처리량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국제 무역항입니다. 닝보는 지금도 항구 도시로서 매우 유명하지만 과거에도 국제적인 교역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던 주요 국제 무역항 중 한 곳이었습니다. 당나라 시절에는 신라와 일본 그리고 동남아의 배가 이곳을 자주 왕래했고 또 해상 무역을 관할하던 관청인 시박사라고 하는 관청도 닝보에 설치가 되었죠. 송나라 이후에는 원나라 때까지 고려의 무역선이 드나들었고 또한 일본의 승려들이 이곳으로 유학을 오기도 하였습니다.

닝보에는 고려와 관련 있는 장소가 지금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려 사관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송나라 때는 고려의 사신들이 머물렀던 그런 장소입니다. 송나라 역시 고려와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려를 극진하게 대하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고려에서는 송나라 사신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려 사신의 수가 증가하면서 송나라에는 고려 사신들이 묵을 수 있도록 고려정이라고 하는 건물을 짓게 되는데요. 처음 이 고려정은 당시 북송의 수도였던 카이펑과 가까운 산둥의 덩저우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덩저우는 한반도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고려 사신들은 덩저우에 상륙해서 육로를 통해 송나라의 수도인 카이펑까지 갈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둥반도는 당시 요나라와도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로를 이탈할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요나라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었고 이에 고려는 사신들의 경로를 지금의 닝보인 당시 밍저우로 교체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1084년 송나라는 밍저우에 고려정을 짓게 되죠.



이후 고려정은 밍저우에서 수도 카이펑까지 가는 길목의 여러 도시에 세워지게 되고요. 1117년에는 송나라 황제 휘종이 밍저우 태수에게 칙령을 내려서 고려 사신의 왕래와 관련한 사무를 담당하는 고려사라고 하는 관청의 설치와 그리고 고려 사신을 접대하기 위한 영빈관이죠. 그래서 고려 사관이라고 하는 고려 사신만을 위한 기관을 짓도록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송나라는 고려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고려 사신에 대한 송나라의 대우가 더욱 후해지자 송나라에 파견되었던 고려 사신의 수는 점차 늘어나게 되었고 송나라에서도 이들을 접대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만 했습니다.

한때 그 정도가 심해서 북송의 대표적인 시인이자 관료였던 소동파가 고려 사신을 접대하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조정에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송나라 조정은 고려 사신을 크게 환대하였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에도 송나라 황제는 오히려 고려 사신의 지위를 국신사, 즉 송나라와 대등한 관계의 사신으로 승격을 해서 오히려 예우를 높여주었습니다. 현재 닝보시 월호 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월호 공원 내에 있는 고려 사관은 고려 사관이 있던 터에 새로 복원해서 지은 것이지만 고려와 송나라의 교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려 사관은 송나라가 고려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에 남아있는 고려의 지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신라와 당나라 교류의 흔적으로 신라인이 많이 거주하였던 지역의 신라소 그리고 신라방, 신라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고 또 현재 푸젠성 취안저우에 남아 있는 신라촌이라는 곳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신라촌과 마찬가지로 현재 중국에는 고려라는 이름이 들어간 지명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려착이라든가 고려촌, 고려산, 고려묘, 이런 지명들인데요. 이들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상세히 조사 그리고 연구했던 취안저우 해외 교통사 박물관의 예언뎬이라고 하는 연구 위원은 고려가 들어간 이들 지역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고려와 지명들이 관련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특정 성씨의 족보와 그리고 지역의 사료 그리고 『구당서』와 같은 사서 이런 자료의 내용과 그리고 해당 지역민의 인터뷰 등을 토대로 추정해보면 이 지역들은 과거 고려인들이 거주했던 지역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이는 고려와 송나라의 교류의 흔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는 장쑤성 난징시 푸커우라는 곳에 고려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고려촌과 관련하여서 원나라 말기에 당시 고려군의 일부가 이 지역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원나라 말기의 장사성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켰을 때 원나라 조정의 요청으로 고려의 군대가 난을 진압하는 데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고려군의 일부가 푸커우의 고려촌과 그리고 여러 곳을 점령을 하였고 이때 고려군의 일부가 또 고려촌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이유에서죠. 신라와 당의 교류가 확대되고 또 재당 신라인 사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신라가 들어간 지명이 생겨난 것을 고려하게 된다면 고려가 들어간 이들 지명 또한 당시 고려와 그리고 송나라의 교류의 흔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속의 한국 – 고려~조선

8-3 고려청자와 한중교류

다음은 고려를 대표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려청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청자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은 분들께서는 이 고려청자를 직접 보시기도 하셨을 텐데요. 고려청자는 고려 시대에 융성했던 당시의 화려한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과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가 건국된 10세기 초반 당시 자기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던 나라는 전 세계에 단 세 나라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자기가 탄생한 중국과 그리고 중국의 영향을 받아 자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된 고려와 베트남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자기라고 하는 표현은 도기와 자기를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요. 도기는 신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것을 모두 포함하지만 자기는 흙을 분쇄하여 그릇의 형태를 만들고 그릇 표면에 유약이라고 하는 것을 발라서 고온에 구워냄으로써 그릇 표면이 유리질처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기 제작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인류의 역사만큼 길지만 자기의 역사는 중국 한나라 때 시작되었다고 하니 약 2,00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이죠. 지금이야 우리의 생활 속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 또 사용하고 하는 것이 자기이지만 당시에는 자기 제작 기술이야말로 하이테크 중에서도 하이테크 기술이었습니다. 아무나 흉내 낼 수 없는 그런 기술인 것이죠.

쉽게 유럽의 상황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과 비교해 보면 유럽에서 처음으로 자기가 만들어진 것은 18세기 초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중국의 자기들을 수입을 해서 이 수입한 것을 바탕으로 연구의 연구를 거듭해서 18세기 초가 되어야 드디어 자기 만드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럽은 중국에서 처음 자기가 탄생한 이후 약 1000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야 자기 생산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대단한 기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고려에서는 자기를 생산할 수 있었고 그리고 고려에서 주로 생산되던 자기는 고려청자였습니다. 청자라는 자기죠. 청자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푸른빛의 자기였습니다. 청자는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고려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청자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려에서 생산한 청자는 중국의 청자와 달리 고려만의 독특한 빛깔과 그리고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1세기가 되면 고려청자는 고려만의 독자적인 조형적 특징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12세기가 되면 고려의 장인들은 소위 비색이라고 불리는 맑은 청색의 청자와 함께 상감기법이라고 하는 전 세계 유일의 제작 방식을 통해서 고려만의 독특한 미감의 청자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청자의 이와 같은 독창성과 아름다움 그리고 우수성이 당시 중국 대륙에 알려지면서 고려청자는 송나라를 비롯해 원나라 귀족층의 애장품으로 각광받기 시작하였고 민가에도 널리 사용되면서 많은 수의 고려청자가 중국으로 수출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이 발명한 청자를 고려가 수용하게 되고 또 고려의 장인들이 더 독창적이고 뛰어난 방식으로 더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발전시킨 것이죠. 고려청자는 특히 당시 청자의 원산지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대륙에서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특히 문치주의를 강조했던 송나라에서 귀족들을 중심으로 뛰어난 고려청자를 소장하기 위해 무척 애를 썼다고 하는데요. 북송 시대의 유명한 시인인 소동파는 고려청자를 고려가 생산했던 종이와 함께 천하의 명품으로 꼽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신의 신분으로 고려를 방문했던 서긍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려에 약 한 달간 머무르면서 자신이 보고 들은 내용들을『선화봉사고려도경』이라는 책으로 남겼는데요. 서긍은 이 책에서 고려청자의 비색에 대해 “자기의 빛깔이 푸른 것을 고려에는 비색이라고 부르는데 근래에 들어 제작 기술이 정교해져서 빛깔이 더 좋아졌다.”라고 높이 평가하였고 마찬가지로 송나라 때의 태평노인이라는 사람도『수중금』이라고 하는 책에서 “고려청자의 비색은 천하제일이며 따라 하고자 해도 도저히 따라 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의 청자는 중국으로 역수출되면서 유명세를 더하게 되었죠. 그리고 송나라 때는 비색의 순청자가 유행했다면 12세기 중반 이후가 되면 상감기법을 적용한 상감청자가 유행하면서 원나라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고려만이 갖고 있었던 독특한 제작 기법인 상감기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릇의 표면을 파내는 방식으로 그림이나 문양을 새깁니다. 그리고 새긴 곳에 흰색이나 붉은색 등의 흙을 채워서 구워내는 방식인데요. 이 상감기법은 유일하게 고려에만 있던 제작 기법으로 고려만의 독창적인 기술입니다. 이 기법은 오히려 중국으로 전해지며 차용되기도 하였는데요. 이후 고려청자는 원나라의 간섭이 본격화되는 13세기 초반까지 크게 발전하면서 고려청자의 전성기를 노릴 수 있었고 또 고려청자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려청자는 교역을 통해 많은 양이 중국으로 전해졌는데요. 지금도 중국 곳곳에서 고려청자가 발굴되고 있습니다. 특히 송나라와 원나라 때 해상 교역의 중심지였던 지금의 저장성 닝보와 그리고 항저우 일대 그리고 장쑤성 일대에서 많이 출토가 되었고요. 삼국시대 때부터 한반도와 빈번한 교류가 있었던 지금의 산둥반도 그리고 랴오닝성에서도 고려청자가 출토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비롯해서 허베이성이라든가 아니면 지린성 그리고 지금의 내륙 지역인 네이멍구 아니면 안후이성, 이런 지역에서도 고려청자가 출토되었습니다. 심지어 타이완에서도 고려청자가 출토되었습니다. 물론 이들 중국 지역에서 출토되는 고려청자는 국내에서 출토되는 고려청자의 규모와 비교하면 적은 숫자라고 할 수 있지만 중국의 곳곳에서 출토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려청자가 당시 중국 전역에서 소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당시 고려청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고려청자는 오늘날에도 한중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2013년에 항저우에 있는 남송관요박물관이라는 곳에서 고려청자와 중국 자기 기술 전승 교류 특별전이라고 하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특별전에는 항저우 인근에서 발견되었던 고려의 상감청자 파편이 대량으로 전시가 되었고 특히 파편 중에는 상감청자로 제작된 당시 중국 송나라 황실의 제사 의례용 물품과 그리고 황제의 부인 그리고 황제가 살았던 궁전의 명칭이 새겨진 그런 파편들도 있었는데요. 상감청자가 송나라 황실에 수입이 되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중국 각 지역의 박물관에는 해당 지역에서 출토된 고려청자를 비롯해 많은 수의 고려청자가 전시되고 있어서 중국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려의 청자는 중국의 청자의 영향을 받았지만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또 이 기술을 바탕으로 당시 최고 수준의 자기를 생산함으로써 오히려 청자의 원산지인 중국에서 사랑받는 고려시대 최고의 수출품이 될 수 있었고 고려와 중국의 교역과 그리고 또 그 당시의 문화 교류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려청자에 관한 짧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도 고려청자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레이션 : 저는 무엇일까요? 저는 10세기 이전에 만들어졌고 1,300℃ 뜨거운 열기에서 탄생하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은은한 푸른색을 입고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에 따라 종류도 다양하죠. 네, 천년의 비색을 자랑하는 저의 이름은 고려청자입니다. 흙을 다지고 모양을 만들어 문양을 넣고 가마 속에서 한번 구운 뒤 유약을 바르고 건조시켜 다시 가마 속에 넣고 구워 단단하게 만든 고려청자. 청자는 중국 송나라에서 비롯되었지만 고려인들의 집념과 열정 속에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욱 뛰어난 청자를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탄생한 고려청자의 특징, 푸른창공을 나는 학 무늬와 부드러운 허리 곡선, 그리고 은은한 비색까지. 고려인들의 창의력이 세계사에 빛나는 고려청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릇 색의 푸른 것을 고려인들은 비색이라 부른다. 근래에 들어 그 제작이 더욱 정교해지고 색이 더욱 좋아졌다. 그리고 고려청자의 또 하나의 비밀, 상감기법. 예리한 조각칼로 무늬를 파낸 다음, 그 부분에 다른 색 흙물을 메워 넣는다.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듯 세밀하고도 매끄럽게 표현할 수 있는 고려인들의 기술. 같은 문양을 반복하는 대신 중심 문양을 전경에 크게 세우고 물, 새, 바위, 인물을 배치하여 하나의 화폭과 같은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잠깐, 이름이 어렵다고요? 도자기의 이름은 종류와 기법, 표현된 무늬와 용도 순, 이름 하나로 도자기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순한 도자기가 아닙니다. 저는 한국의 미와 독창성을 품은 천년의 비색을 자랑하는 고려청자입니다.



중국 속의 한국 – 고려~조선

8-4 조선과 중국과의 관계

다음은 조선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선은 1392년 이성계에 의해 건국된 왕조로 불교를 국교로 삼았던 고려와는 달리 철저하게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고 반대로 불교를 배척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철저한 성리학적 기반의 질서는 원나라를 무너뜨리고 등장한 명나라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명나라를 이어 등장한 청나라와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말 중국 대륙에서는 1368년 주원장에 의해서 명나라가 세워집니다. 북방의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를 멸망시키고 한족의 지배를 회복하면서 전통적인 중국의 문화를 부흥시키게 되죠. 특히 명나라는 한족의 전통적인 유교 문화를 회복시키면서 사상과 정치가 크게 발전하는데요. 이에 성리학을 통치의 근간으로 삼은 조선은 명나라에 대해 사대 외교를 취하게 됩니다. 사대 외교란 사대 자소, 즉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섬기고 또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아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맹자는 사대 자소에 대해서 “오직 어진 사람이라야 큰 나라로서 작은 나라를 섬길 수가 있고 오직 지혜로운 사람이라야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길 수 있다고 하였고 또한 큰 나라로서 작은 나라를 섬기는 사람은 하늘의 이치를 즐거워하는 자고 또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 자는 하늘의 이치를 두려워하는 자라고 해서 하늘의 이치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천하를 보전하고 또 하늘의 이치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나라를 보전할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조선과 명나라와의 관계는 사대 외교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 전개되었다는 것이 큰 특징인데요.

하지만 사대 외교를 흔히 사대주의와 혼동해서 조선의 자주성이나 주체성이 없는 것처럼 이해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맹자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사대 외교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민족의 보존을 위한 현실적인 외교 정책으로서 자주성이나 그리고 주체성과는 결코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도 고려를 무너뜨리게 된 계기인 위화도 회군 때 명나라를 공격할 수 없는 네 가지 이유를 드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로 든 것이 바로 이소역대, 즉 이소역대 불가라고 하는 것은 작은 나라가 큰 나라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의 대명 사대 외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당시 국제 정세를 바탕으로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써 선택된 현실적인 외교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바뀐 중국 중심적 국제 질서의 변화에 조선은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대명나라 중심의 외교가 4대를 표방하게 된 것인데 이것은 결국 당시 신생 왕조였던 조선의 자기 보존을 위한 현실적인 대응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조선의 대명 사대 외교는 기본적으로 조공과 책봉이라는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조공, 책봉이라고 하는 것은 명나라의 황제가 조선의 왕을 책봉을 하게 되면 조선은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하는 것이죠. 조선은 왕이 즉위를 하면 명나라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또 명나라가 사용하는 연호를 조선이 사용해야 하는 한편 성절사라든가 천추사, 정조사 그리고 동지사, 이렇게 불리는 정기적인 사행, 즉 정기적으로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야 했고 이런 정기적인 사행 외에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명나라에 사신을 보냄으로써 형식적인 정치적 종속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조선이 명나라로부터 직접적인 정치적인 간섭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선은 명나라 사행을 통해서 명나라와 무역을 할 수 있었고 또 명나라로부터 선진 문물을 수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익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행단에 속해 있던 조선의 사신들은 당시 사행을 통해서 명나라 인사들과의 인적 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화 교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조선과 명의 관계는 1592년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임진왜란은 많은 분들께서 아시고 계실 텐데요. 당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자 조선은 명나라에 원군을 요청하게 되고 이 전쟁 이후 명나라는 조선을 구해주었다는 재조지은, 즉 망해가던 조선을 구해서 다시 나라를 만들어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앞세우면서 조선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명나라 역시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국력이 많이 쇠약해져 있었고 또 당시 명나라 내에서는 많은 정치적인 문제, 부정부패, 이런 것들 때문에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7세기 초가 되면 여진족을 통합한 누르하치가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륙의 명나라와 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르하치의 아들 홍타이지는 국호를 청으로 고치고 명나라와 치열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때 청나라는 명나라의 충실한 제후국을 자처했던 조선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자신의 세력권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조선이 이에 저항을 하자 1627년 정묘호란 그리고 1636년 병자호란을 일으킴으로써 무력을 통해 조선을 복속시키게 됩니다. 여기에 1644년 결국 명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중국은 다시 한번 여진족이라고 하는 이민족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었고 조선은 청나라와 새로운 사대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명나라 때 했던 사대 외교와 청나라 때 했던 사대 외교가 서로 다른 것은 명나라에 대한 조선의 사대 외교가 자발적인 것이었다면 청나라에 대한 사대 외교는 청나라의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선은 자신들이 오랑캐라고 얕잡아 보던 청나라와 사대 관계를 이어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조선은 두 번의 호란으로 청나라와 군신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숭명배청, 즉 명나라를 숭상하고 청나라를 배척한다는 의식이 그 명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은 청나라를 오랑캐의 나라로 인식하였고 조선 스스로가 명나라를 계승하여 소중화라고 자처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조선 지배층의 의식에는 비록 나라는 망했을지라도 대의명분, 즉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극단적인 명분론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이것은 단순히 명나라에 대한 사대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소중화라고 인식하는 조선 지배층의 사고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숭명배청 사상은 17세기 북벌론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당시 효종은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고 그리고 병자호란의 치욕을 갚자며 청나라 공격을 계획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실패하게 되죠. 다시 말해 조선에서는 청나라에 대한 사대를 현실로 받아들이면서도 명나라에 대한 사대와 그리고 청나라에 대한 사대를 동일하게 인식하지 않고 청나라를 중화로 인정하지 않은 태도를 오래도록 견지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조선과 청나라 두 나라의 사신은 빈번하게 교류하였는데요. 1637년부터 1893년까지 조선은 256년에 걸쳐서 총 507회의 사행단을 청나라에 파견을 하였고 또 청이 조선에 보낸 칙사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두 나라는 훨씬 더 많이 접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행이라고 하는 사신단 교류를 통해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들의 왕래를 통해 상호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두 나라 학자들 사이에 활발한 문화적 교류가 있었는데요. 지금의 베이징인 당시 연경에는 유리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당시 청나라에서도 학술과 문화의 중심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사신들과 그리고 지식인들은 사행단으로서 연경을 방문할 때면 항상 이곳을 들러 청나라 지식인들과 교류하곤 하였습니다. 유리창이라는 곳이 조선과 청나라 지식인들의 인문 교류의 장소였던 것이죠. 예를 들면 유리창과 일대의 많은 골목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인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서호수, 유득공, 이런 조선의 북학파 지식인들이 청나라 문인들과 필담으로 시문을 나누고 자신들의 사유를 펼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말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담으로 대화를 나누면서도 상호 관심사인 학술과 문화, 예술, 나아가 철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담론들을 자유롭게 교환하고 또 이를 통해 우정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두 나라 지식인들의 인문 교류 중에서도 홍대용이라고 하는 북학파 지식인의 교류가 매우 두드러졌는데요. 홍대용은 유리창 인근에서 청나라 지식인인 엄성, 육비, 반정균, 이런 지식인들과 필담으로 교류했던『건정동필담』이라고 하는 책을 남겨서 당시 조선 지식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홍대용과 엄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교류는 이들이 사후에도 3대에 걸쳐 이어져 조선과 청나라 간 문인 교류의 상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일하제금합집』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엄성은 죽기 직전에 덮고 있던 이불 속에서 홍대홍이 자신에게 보냈던 편지를 꺼내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조선의 박지원이라든가 박제가, 김정희, 이런 지식인들은 당시 청나라의 유명 문인들과 교류를 하였고 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깊은 교류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이 되면 서구 열강의 아시아 침략 등으로 중화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조선과 청나라의 정치적 사대 관계 역시 끊어지게 되었고 조선은 중화 질서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속의 한국 – 고려~조선

8-5 조선의 사행단과 한중 문화교류

그렇다면 이 중국에는 조선과 관련하여서 어떠한 흔적들이 남아 있을까요? 이번에는 조선 사행단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 주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협력 증진과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해서 조선시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사행단이라고 하는 교류를 테마로 해서 제1회 사행단 문화 축제를 개최하였는데요. 이 행사는 두 나라의 사행단 전문가와 학자들이 참여한 국제학술대회를 비롯해서 음악 공연 그리고 사행단 교류의 기록 전시,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개막한 제2회 문화 축제의 경우에는 이 두 나라의 중앙 정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격상이 되면서 행사의 규모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이 직접 조선 사신이 다녔던 길을 답사하는 이런 다양한 행사가 추가되기도 하였습니다.

조선시대 사행단과 관련한 행사는 그 뒤로도 계속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2017년에는 한중 문화 교류 행사의 일환으로 중국의 단둥에서 선양까지 연행로를 탐방하는 청소년 사신단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고 2018년과 2019년에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대학생들이 조선시대 사행단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문화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11월에는 주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그리고 랴오닝성 인민대외우호협회 등은 두 나라 사신의 왕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긴긴 연행 길, 끝없는 우정”이라는 주제의 전시회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 사행단의 역사적 유산은 오늘날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우호 관계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두 나라 문화 교류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사행단의 모습은 어땠고 사행단을 통한 두 나라의 교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선 조선시대의 사행단은 조선의 중국관에 따라 명나라 때의 조천사 그리고 청나라 때의 연행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 중국관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 조선이 중국 대륙에 있는 왕조를 어떻게 인식했느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먼저 조선은 명나라를 중국의 정통 왕조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사대 관계를 맺었고 또 신하의 입장에서 천자의 나라인 명나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천사라고 이름하였습니다. 반면 청나라는 오랑캐가 세운 이민족의 나라로서 조선은 어쩔 수 없이 사대 관계를 맺었을 뿐 조선이 자발적으로 행한 사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청나라 때의 사행단은 단지 청나라의 수도인 연경을 간다고 인식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연행사라고 지칭했던 것입니다. 청나라에 대해서는 예를 갖출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천사와 연행사 모두 정례적으로 정해진 때 사신을 파견했던 정기 사행과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사신을 보냈던 임시 사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사행의 경우에는 중요한 절기나 황제나 황후의 생일, 이런 정기적인 일정에 파견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1년에 네 차례 정도 사신을 파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645년 청나라가 연경으로 도읍을 옮긴 이후에는 청나라 조정에 의해서 정기 사행이 연 1회로 통합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조선은 사행단 파견을 통해서 명나라 그리고 청나라와 정치 외교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정치 외교적 관계의 유지는 사행단 파견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조선은 사행단 파견을 통해 중국과 조공 무역이라고 하는 경제적 교류를 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사행단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적 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화 교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사행은 당시의 국제 정세 등 국가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행단의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사행단을 통한 두 나라의 문화 교류일 것입니다. 당시 조선의 사행단은 명나라 때의 경우에는 40일 그리고 청나라 때의 경우에는 보통 60일까지 수도에서 체류할 수 있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사행원들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공적인 활동 이외에도 사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중국 학자들과 접촉함으로써 비록 말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담을 통해서 교류를 하였지만 다양한 형태의 문화 교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중국 지식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견문을 넓힐 수 있었고 대표적인 북학파 실학자인 담헌 홍대용의 경우에는 연경에 머물렀던 62일의 기간 중의 33일을 청나라의 지식인들과 교류하는 데 보냈다고 하니 청나라 지식인들과 조선 사신들의 교류가 얼마나 활발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행단을 통한 조선과 중국의 문화 교류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그리고 조선의 중국관에 의해 명나라 때와 청나라 때 약간은 다른 성격을 보입니다. 우선 조선과 명나라의 문화 교류는 건국 초기 조선의 상황과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은 건국 초기에 명나라와의 교류를 통해 유교와 그리고 성리학적 체제 이념을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치 제도를 확립하고자 하였기 때문인데요.

특히 조선은 문물과 제도를 유교적인 것으로 재정비하고 또 유학자적 관료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명나라와의 문화 교류라고 하는 것 역시 이러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들을 위해서는 명나라로부터 유교 경전인 사서라든가 오경을 비롯해서 정치, 법률, 역사, 의학 심지어 천문에 관한 서적들을 수입해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 8년인 1426년 조선은 명나라에 『사서대전』, 『오경대전』, 『성리대전』, 『송사』, 이러한 서적들을 요구를 하고요. 명나라는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해서 『사서대전』과 『오경대전』을 비롯해 『자치통감강목』이라고 하는 책들을 보내주게 됩니다. 이처럼 조선은 명나라 사행을 통해 주로 서적을 수입하는 데 큰 힘을 쏟았고 명나라와의 문화 교류 역시 사대를 기반으로 하는 유교 중심의, 성리학 중심의 교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서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의 중국관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조선은 청나라를 오랑캐로 여겼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조선이 청나라보다 우월하다고 여겼는데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두 번의 전쟁을 겪으면서도 명나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스스로 소중화로 여겼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청나라의 문화를 더욱 무시하게 됩니다.

실제로 현재 연행사에 관한 많은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이들 기록을 보면 연행을 다녀온 조선의 많은 지식인들은 청나라의 문화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조선시대 대표적인 실학자인 연암 박지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계시나요? 연암 박지원은『열하일기』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여행의 기록을 남겼습니다.『열하일기』는 박지원이 정조 4년인 1780년 연경을 거쳐 청나라 황제의 별장인 열하라고 하는 곳까지 여행을 하면서 감상을 적은 기획문인데요. 박지원 역시『열하일기』에서 “청나라의 문물이 이토록 번성하고 있는데 어찌 우리 조선의 선비들은 명나라만 찾고 청나라를 배격하는가?”라고 하면서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이 청나라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적인 관계는 18세기 이후 점차 깊어지게 됩니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우선 서양의 학문과 기술이 청나라에 본격적으로 전해지기 시작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나라에서는 실사구시, 즉 진리 탐구를 강조하는 실학과 고증학 등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학문적 풍조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연행사를 통해 청나라의 학문적 풍조가 조선에 전해지면서 조선에서도 새로운 학풍이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청나라의 학문적 풍조에 영향을 받았던 홍대용이라든가 박지원,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박규수,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실학파가 형성되면서 조선의 학문적 분위기도 크게 바뀌게 되었고 또 조선의 사행단에 이들 실학파 지식인들이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청나라와의 문화 교류는 더욱 깊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홍대용은 연경에 머물렀던 기간 중 절반 정도를 청나라 지식인과 교류하는 데 사용하였고 홍대용 외에도 박지원이라든가 박규수, 박제가 등의 실학파 지식인들은 연행사로 청나라에 머무는 동안 많은 청나라 지식인들과 교유하면서 우정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연행사의 연경 활동이 많아지면서 또 자연스럽게 조선과 청나라의 지식인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주로 만났던 곳은 외교를 위한 공식적인 장소로서 조선사관이라고 하는 곳 외에 아까 말씀드린 유리창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유리창이라는 곳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인사동과 같은 곳으로 골동품뿐만 아니라 책, 서예 관련 용품, 서화, 문방사우, 문방사우는 종이, 붓, 벼루, 먹,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의 집산지로서 조선의 선비들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행사에 참여한 지식인들은 꼭 유리창을 방문하였고 자연스럽게 유리창을 중심으로 청나라 지식인들과의 교류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8세기 후반이 되면 두 나라 지식인들의 교류는 연행사의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는데요. 뒤에 이야기할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세한도”는 당시 활발했던 조선과 청나라 지식인 교류의 양상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처럼 조선과 중국의 문화 교류는 시기별로 명나라 때와 청나라 때 각각 다른 양상을 보였고 특히 18세기 이후 여러 가지 대내외적 상황이 바뀌면서 조선의 지식인들은 사행단을 통해 청나라의 지식인들과 깊은 교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사행길은 곧 문화교류의 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속의 한국 – 고려~조선

8-6 추사 김정희와 한중 문인교류

끝으로 조선과 청나라 지식인 교류의 상징과도 같은 조선의 지식인 추사 김정희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는 조선시대 후기 사람으로서 무엇보다 글씨를 잘 쓰는 명필로 천하의 명성을 떨쳤던 사람입니다. 아마 추사 김정희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추사 김정희는 물론 글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학문을 비롯해서 시와 그림, 이런 예술에서도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던 사람이고 금석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분야에서도 뛰어난 업적을 남겼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당시 김정희와 교류하던 청나라의 학자들은 김정희를 가리켜서 유학을 비롯해 여러 학문에 능통했던 조선 최고의 학자라는 뜻에서 해동제일통유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김정희는 1809년 24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연행사에 포함이 되어서 연경에 다녀올 수 있었고 사행단을 통해서 청나라 지식인들과 교류할 수 있었는데요. 김정희는 일찍이 실학의 대가였던 박제가의 영향으로 청나라에 대해 원래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청나라 학자들과의 교류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김정희는 특히 연행사로 청나라에 머물렀던 60일 동안 당시 청나라의 저명한 학자였던 옹방강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 교류하게 되는데요. 옹방강이라고 하는 인물 역시 서예와 문학, 금석학, 이런 분야에서 조예가 깊었던 그런 학자였습니다. 김정희와 옹방강의 만남 역시 김정희의 스승이었던 박제가의 소개로 가능할 수 있었는데요. 김정희가 연경을 방문했을 때는 옹방강의 나이는 이미 80살에 가까웠지만 김정희의 학문과 예술적 소양에 대해 깊이 감동을 하게 되고 비록 두 달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둘은 스승과 제자의 인연을 맺게 이릅니다. 그리고 김정희가 조선에 귀국한 뒤에는 편지를 주고받으며 교류를 이어가기도 하였죠.

옹방강이라고 하는 인물과 함께 완원이라고 하는 청나라의 대학자도 김정희와 인연을 맺게 되는데요. 완원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신보다 무려 22살이나 어린 김정희의 천재성과 그리고 높은 학문적 수준에 크게 놀라면서 또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정희는 완원과도 사제의 인연을 맺게 되는데요. 김정희와 완원의 교류는 완원이 사망할 때까지 무려 40년 가까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원은 김정희의 삶을 비롯해 철학과 예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도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옹방강과 완원 외에도 청나라 지식인들은 김정희와 교류하고 싶어 했는데요. 김정희가 연경에 머무는 동안 김정희의 집에는 김정희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청나라 문인들로 문전성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정희의 작품 중에는 조선과 청나라의 지식인들이 어떻게 교류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김정희가 제주도에 유배를 갔을 때 제주도 유배 시절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제자이자 통역관인 이상적에게 선물로 그려준 "세한도"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제자 이상적의 변치 않는 의리를 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소나무와 측백나무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원래 "세한도"는 가로가 70cm 정도 그리고 세로가 23cm 정도의 그렇게 크지 않은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 이상적은 연경 출장길에 "세한도"를 들고 가고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청나라 지식인이 주최한 모임에서 "세한도"를 청나라 지식인들에게 꺼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한도"를 본 청나라 지식인 16명은 "세한도"에 대한 감상을 그림 옆에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김정희로부터 시작된 조선과 청나라의 문화 교류가 자신의 제자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감상평을 받으면서 "세한도"는 70cm였던 길이가 총 10m에 가까운 대형 그림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김정희의 작품에 대한 청나라 지식인들의 마음과 그리고 김정희에 대한 마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현재 "세한도"는 국보 180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김정희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김정희는 오늘날에도 한국과 중국의 문화 교류에 있어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2019년 6월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는 한중 문화교류 차원에서 "추사 김정희와 청조 문인의 대화전"이라고 하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 전시는 특히 2016년 사드 문제 이후 급속히 냉각되었던 한중 관계가 다시 회복하는 시점에서 열렸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중국 내 국립미술관 중에서도 가장 권위가 있다고 하는 중국미술관에서 전시가 진행되었다는 것도 중국에서 김정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전시회에 방문한 사람들은 하루 평균 5,000명이었다고 하는데요. 두 달 동안 무려 총 30여만 명의 중국 사람들이 김정희의 작품을 보기 위해서 다녀갔다고 합니다.



끝으로 그림 한 장과 그리고 영상 한 편을 보실 텐데요. 이 그림은 김정희가 청나라를 떠나기 전 청나라의 문인들이 김정희를 초대하여 송별을 해줬던 그런 모습을 담은 “추사동귀도”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추사동귀도”라고 하는 작품명에서 “추사”가 바로 김정희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보면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김정희입니다. 그리고 또 그림을 보시면 청나라 문인들에 둘러싸여 있는 김정희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청나라 문인들에게 김정희와의 만남은 그만큼 의미 있었던 것입니다. 김정희가 연경을 떠나서 헤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아쉬웠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당시의 여운을 그림으로 남겼던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함께 보실 영상은 앞서 말씀드린 김정희의 “세한도”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16명의 청나라 지식인들이 써준 감상평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수경 : 국보 제180호, 불세출의 명작 세한도입니다. 세한도는 돌아가신 손세기 선생님이 1970년대부터 소장하셨고 장남 손창근 선생님이 소중하게 간직하시다가 2020년에 아무런 조건 없이 기증하셨습니다. 똑똑하고 총명했던 명문가의 자제 김정희는 반대 세력인 안동 김문의 모함으로 55세 때 억울하게 제주도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유배형 중에서도 가장 엄중한 절해고도 위리안치입니다. 즉, 멀리 떨어진 섬에서 가족이 함께 갈 수도 없고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감금형에 처해진 것입니다. 조선 시대에 유배는 그리 드문 일은 아니었지만, 기한이 없습니다. 3년이 지나도 김정희에게 아무런 소식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정희를 사형에 처하라는 상소가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죄인 김정희를 변함없이 대하는 제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중국어 통역관 이상적이었습니다. 이상적은 중국에서도 구하기 쉽지 않은 책을 제주의 김정희에게 줄곧 보내주었습니다. 책, 김정희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는 늘 책에서 학문과 예술의 근원을 찾았습니다. 또한 유배 중인 그에게 책은 고독을 달래주는 친구와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김정희는 이상적의 변치 않은 의리를 공자님 말씀을 담은『논어』의 '세한연후지송백지후조'라는 유명한 구절에 빗대어 칭찬하고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세한'은 한겨울 추운 날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되어서야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림 왼쪽에 종이를 이어 네모 칸을 친 부분에 이 그림을 왜 그리게 되었는지를 강하고 굳센 필체로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김정희는 이 구절을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했을까요?

둥근 문이 있는 허름한 집 좌우로 소나무 두 그루, 측백나무 두 그루를 세워놓았습니다. 쉽게 쓱 그린 그림처럼 보이시나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나무줄기와 잎을 표현한 메마르면서 촘촘한 필치가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물기 없는 마른 붓에 진한 먹물을 묻혀 칼칼하게 표현했습니다. 언뜻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마른 붓을 다루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 필법은 김정희가 오랫동안 갈고닦아 이루어낸 필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김정희는 메마르고 황량한 세한, 가장 추운 겨울날의 분위기를 전달하는데 가장 어울리는 필법을 찾아낸 것이지요. 이 그림은 조선 시대 그림으로는 드물게 제목과 제작 동기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림 오른쪽에 '세한도'라는 제목을 적고 이어서 "우선 보시게나, 완당"이라고 써서 자신이 이상적을 위해 그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아래에 '정희'라는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김정희는 평소 다양한 인장을 즐겨 사용했는데요. 〈세한도〉에도 4개의 인장이 찍혀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새긴 '정희' 외에도 호를 새긴 '완당'과 '추사' 인장이 있고 시구를 쓴 '장무상망'이 찍혀 있습니다. 이중 가장 주목할 것은 그림 오른쪽 아래에 있는 '장무상망'입니다. '오래도록 서로 잊지 말자'라는 의미인데요. 김정희는 바로 이 마음을 담아 인장을 꾹 찍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김정희는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제목, 소재, 필법, 인장으로 치밀하게 〈세한도〉를 완성했습니다. 〈세한도〉가 뜻과 정신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문인화 중에서 최고라고 평가 받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상적은 일곱 번째로 떠나는 중국 출장길에 〈세한도〉를 소중히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평소 친하게 지냈던 청나라 문인이 주최한 모임에서 〈세한도〉를 꺼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여하거나, 또는 그 그림을 본 청나라 문인 열여섯 명이 감상 글을 적었는데요. 그 글들이 세한도 두루마리 중 세 번째 부분에 해당합니다.
김정희가 제자 이상적에게 준 〈세한도〉는 이후 이상적의 제자 김병선이 소장하다가 그의 아들 김준학에게로 전해졌습니다. 김준학은 오랫동안 앓다가 쾌차한 것을 기념해서 1914년에 '완당세한도'라고 쓰고 시를 지었습니다. 그 종이가 김정희가 그린 〈세한도〉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30년 뒤, 세한도가 제작된 지 100년이 지난 1944년에 손재형은 일본인 후지쓰카 지카시에게 〈세한도〉를 돌려받았습니다. 광복 후 1949년, 손재형은 당대를 대표하는 지식인인 정인보, 이시영, 오세창에게 〈세한도〉 감상 글을 청했습니다. 〈세한도〉 두루마리에는 빈 공간이 많습니다. 손재형은 더 많은 글을 받고자 했을 것입니다. 손재형이 채우지 못한 이 공간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한번 채워 보셨으면 합니다.



장영덕 교수: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약 500년 동안 중국의 송나라 그리고 원나라와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할 수 있었고 특히 서로 다른 두 민족의 문화와 접촉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저장성 닝보에는 고려의 사신을 접대하던 고려사관이 복원되어 남아 있는데요. 당시 고려의 활발한 대외 관계와 송나라의 고려 인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에는 고려라는 이름이 들어간 지명이 다수 남아 있는데요. 이는 과거 고려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고려청자는 당시 고려의 최고 교역품으로써 송나라 지배층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조선은 약 500년 동안 명나라 그리고 청나라와 교류하였고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의 대중국 인식과 그리고 관계는 조선의 중국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조선과 명나라 그리고 청나라와의 관계는 사대 관계로서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사행단을 보냈고 명나라 사행단의 경우 조천사, 청나라 사행단의 경우 연행사로 불렀습니다. 조선은 사행단 파견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접촉할 수 있었고 또 인적 교류를 통해 적극적인 문화 교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희는 당시 두 나라 간 인적 교류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사행단을 통한 문화 교류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오늘날 한중 교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Lecture

Korea in China – Goryeo ~ Joseon

8-1 Relations between Goryeo and China

hello? My name is Jang Youngduk, who lectures on 'China in Korea and Korea in China.' Today, in the 8th week lecture, we'll learn about the traces of Korea in China. Among them, let's take a look at the traces left in exchanges with China from the Goryeo Dynasty to the Joseon Dynasty. So today's lecture i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Goryeo and China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let's find out and understand what the traces of exchanges in the two eras remain in China.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Goryeo, we learn about cultural heritage such as Goryeo celadon along with traces of diplomatic exchanges. And in the case of Joseon, we will study the traces of the envoys who went to the Ming Dynasty and the Qing Dynasty, and the traces of human exchanges along with the traces of the envoys. So, through this lecture, you can understand and talk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Goryeo and China, and Joseon and China. And we can talk about the traces left by exchanges between Goryeo, Joseon, and China. Finally, you can understand how historical exchanges in the Goryeo and Joseon Dynasties affect current Korea-China exchanges.

Last time we looked at the traces of Goguryeo and Silla, the ancient Korean states, that remain in China. We were able to know that the ancient states of the Korean Peninsula had already influenced each other through frequent exchanges with mainland China from about 1,500 years ago. And we were able to see that there are traces of them all over China. Next, let's look at how exchanges with China were during the Goryeo and Joseon Dynasties, and then take a look at how the traces remain today.

I'd like to talk about Goryeo first. Goryeo was founded in 918 by Wang Geon. And after that, it is a dynasty that lasted for 474 years until the Joseon Dynasty was established by Yi Seong-gye in 1392. And when Goryeo remained on the Korean Peninsula, in China, after the fall of the Tang Dynasty in 907, the Song Dynasty appeared through a very confusing period called the Five Dynasties period. After that, the Song Dynasty collapsed and the Yuan Dynasty entered. And Goryeo mainly exchanged with the Song Dynasty and the Yuan Dynasty. In the late Goryeo Dynasty, Goryeo was subjugated by the invasion of the Yuan Dynasty and was greatly influenced by the Yuan Dynasty. Then, what was the relationship between Goryeo and these Song and Yuan dynasties?

First, let's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Goryeo and Song Dynasty. In China during the Goryeo Dynasty, there was the Song Dynasty that unified the chaotic situation of the Five Dynasties Period. Then in the north, it was a time when the northern powers such as the Khitan, the Jurchen, and the Mongols were expanding their forces. In particular, the relationship between Goryeo and Song was greatly influenced by these northern powers, such as the Liao Dynasty of the Khitan tribe and the Jin Dynasty of the Jurchen tribe, which were growing in power in the northeast region of the Chinese mainland at the time. Both Goryeo and Song dynasties were holding these northern powers in check. And this common purpose has made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possible. Through the relationship with the Song Dynasty, Goryeo was able to keep the two countries in check, Liao Dynasty and Jin Dynasty, while gaining a lot of economic and cultural benefits through trade with the Song Dynasty. The Song Dynasty also actively used its relationship with Goryeo to keep the northern forces in check.

If you take a closer look, there is a place called Kaifeng, the capital of the Song Dynasty. During the Northern Song Dynasty, which was Kaifeng, the Liao Dynasty of the Khitan people occupied the north. Both the Goryeo and Song dynasties had a common goal: to keep Liao in check. However, depending on the relationship with Liao, each of them pursues practical diplomacy, such as breaking off diplomatic relations and then restoring them repeatedly. For example, Goryeo requested military help from the Song Dynasty in three wars against the Liao Dynasty. But the Song Dynasty was afraid of the Liao Dynasty's invasion, so they turned away from Goryeo. Every time this happens,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were severed. Of course, Goryeo also had to respond lukewarmly when the Song Dynasty requested for military help, so diplomatic relations were severed at that time.

However, as Kaifeng, the capital of the Northern Song, was captured by the Jin Dynasty of the Jurchen tribe, who had pushed out the Liao Dynasty of the Khiran tribe and occupied the northern region, the Song Dynasty moved the capital to Lin'an, which is now Hangzhou. It also moved the capital and rebuilt the Southern Song. So, the Song Dynasty is divided into the Northern Song and the Southern Song according to the early and later periods. In the first half of the 12th century, while the power of the Jin dynasty was rapidly expanding, the Goryeo and Song dynasties were experiencing such diplomatic and military difficulties.



In particular, as Kaifeng, the capital of the Song Dynasty, fell to the Jin Dynasty, even two emperors of the Song Dynasty were held captive by the Jin Dynasty. The Southern Song, which was established later, also had to suffer from the pursuit by the army of Jin Dynasty. In this crisis situation, the royal court of the Southern Song suggested Goryeo's military cooperation. At this time, Goryeo rejected the Southern Song's request for assistance. Because Goryeo also did not actively maintain relations with the Southern Song considering the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Jin Dynasty, which was emerging as a new power at the time. Such an attitude of Goryeo led to a natural severance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the Southern Song also did not accept Goryeo envoys, and the official exchange of envoys eventually ceased.

However, despite this situation, the two countries were able to continue exchanges because exchanges in economic and cultural aspects were very active, in addition to these political practical diplomacy aspects. As I said, the suspension of official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governments did not mean that all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were severed. At that time, the movement of people and goods through the present West Sea was uninterrupted, and what made this possible was the trade of merchants. The royal courts of the two countries were unable to dispatch official envoys even when diplomatic relations were severed. Instead, they conveyed their country's political intentions to the other party by entrusting merchants with the delivery of court documents or giving verbal instructions. This communication method was rather useful and flexible in that it did not feel burdened to make difficult proposals or requests that were difficult to bring out through diplomatic envoys.

Of course, from the point of view of merchants, the treatment they could receive from the other party was much better when they visited the other country on a diplomatic mission rather than visiting the other country for simple economic reasons. And in that more trade opportunities could be expected if official diplomatic relations were restored. they became actively involved in carrying out this mission of coordination. In particular, merchants from the Song Dynasty traveled to and from Goryeo more frequently. If you look at the record of this historical book called 『History of Goryeo(Goryeosa)』, over 120 times over 260 years, about 5,000 merchants from the Song Dynasty visited Goryeo. At that time, Goryeo was in a very culturally prosperous period, so it became an important trade target for Song Dynasty merchants. Therefore, even when the polit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deteriorated, the merchants' trade continued steadily and based on this, the two countries were able to continue exchanges.

The following is the relationship between Goryeo and the Yuan Dynasty that entered after the Song Dynasty. Entering the 13th century, a change in the East Asian situation occurred that greatly changed Goryeo's foreign relations. The Mongols, who lived as nomads in the north, emerged as a new powerhouse. You should be familiar with the unification of the Mongols, which were divided into several tribes in 1206. Genghis Khan established the Mongol Empire, and soon after destroyed the Jin Dynasty established by the Jurchen tribe, conquered the Chinese continent, and established the Yuan Dynasty.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Goryeo and the Yuan Dynasty first began in 1219. At that time, the Khitan people, who were chased by the Mongols, invaded Goryeo in 1216, and in 1219, Goryeo and Mongolia formed an allied army and were wiped out by the allied forces of Goryeo and Mongolia. This was the first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Goryeo and the Yuan Dynasty.

However, the problem was that after that, Mongolia started to make 6 excessive demands for Goryeo. In other words, taking the children of the ruling class of Goryeo as hostages and reporting the Goryeo household survey, and that Goryeo should provide military aid in the case of the Mongol army's expedition, along with this, it is necessary to supply troops, and to install post offices, and Darughachi, in other words, Darughachi means that an official resides in Goryeo in order to interfere in Goryeo's internal affairs. From this point of view, most of the requests could not be easily acceded. It meant that it would actively interfere a lot in consideration. Afterwards, relations between Goryeo and Mongolia deteriorated further.

In particular, in 1225, an envoy called Jeogoyo came to Goryeo to ask for tribute from Mongolian envoys. On the way back to Mongolia after entering Goryeo, he was killed by bandits near what is now the Yalu River. And with this murder case, the relationship between Goryeo and Mongolia gets strained. In 1231, the Mongols invaded Goryeo. Goryeo fought fiercely with Mongolia even moving its capital from Gaegyeong to Ganghwado. However, in 1259, Goryeo finally made peace with the Mongols. And Mongolia established the Yuan Dynasty in 1271 and began interfering in Goryeo's internal affairs. And the intervention of the Yuan Dynasty continued for about 100 years. And while the Yuan Dynasty intervened in Goryeo's internal affairs, they took the descendants of royalty and nobles as hostages, forced them to stay in the Yuan Dynasty, and sent Goryeo women and eunuchs as tribute.



While the Yuan Dynasty intervened in Goryeo, many Goryeo people, including the ruling class of Goryeo, as well as public women and eunuchs, flowed into the Yuan Dynasty. Ironically, however, cultural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were very active because of such forced human exchanges. In particular, as the number of Goryeo people in the high-ranking ranks within the imperial family of the Yuan Dynasty increased, the customs of Goryeo naturally spread to the Yuan Dynasty through them, and the people of the Yuan Dynasty began to follow the refined and luxurious customs and culture of the Goryeo Dynasty at the time. Like this, the customs of Goryeo, which were popular in the Yuan Dynasty, were called Goryeoyang at the time. It can be said to be an example of how popular Goryeo customs were in Yuan Dynasty society. Also, at the end of the Yuan Dynasty, as the number of women in Goryeo increased, clothing, shoes, and hats and other utensils used in the Yuan Dynasty all became fashionable following Goryeo. You can still check the description of Goryeoyang through various historical records. As such, the customs and culture of Goryeo were very popular in the society of the Yuan Dynasty.

Of course, those who returned to Goryeo from the Yuan Dynasty also spread the culture of the Yuan Dynasty to Goryeo society. The culture of Mongolia, which was spread by them and became popular in Goryeo society, is called Mongolian style. Although it was a coercive human exchange due to the Yuan Dynasty's interference in internal affairs, there is of course an aspect that the human exchange between these two countries made mutual cultural exchange possible. As such, Goryeo was able to interact with China's Song and Yuan dynasties in various ways for about 500 years. In particular, they were able to experience cultural diversity by coming into contact with the cultures of two different peoples.



Korea in China – Goryeo ~ Joseon

8-2 Goryeo Envoys and Korean Names in China

Today at this time, we will take a look at the Goryeo official residence where envoys from Goryeo stayed during the Song Dynasty, traces of Goryeo still remaining in Chinese place names, and Goryeo celadon. First, I'd like to talk about the Goryeo official residence. There is a city called Ningbo in a place called Zhejiang Province, a coastal region of China. The city called Ningbo is also called as Youngpa(寧波) with Chinese characters. Ningbo is today a leading international trading port with world-class cargo throughput. Ningbo is still very famous as a port city, but in the past it was also one of the major international trading ports where international trade took place frequently. During the Tang Dynasty, ships from Silla, Japan, and Southeast Asia often came and went here, and a government office called Shibaksa, which was in charge of maritime trade, was also installed in Ningbo. After the Song Dynasty until the Yuan Dynasty, Goryeo trade ships came and went, and Japanese monks also came here to study.

There is one place in Ningbo that is related to Goryeo. It is a place called Goryeo official residence . It is such a place where envoys from Goryeo stayed during the Song Dynasty. The Song Dynasty also treated Goryeo with utmost respect in order to maintain friendly relations with it. As a result, more and more people in Goryeo wanted to go as envoys from the Song Dynasty. As the number of Goryeo envoys increased, a building called Goryeojeong was built in the Song Dynasty to accommodate the Goryeo envoys. Initially, this Goryeojeong was located in a place called Dengzhou in Shandong, close to Kaifeng, then the capital of the Northern Song Dynasty. Because Dengzhou was close to the Korean peninsula, envoys from Goryeo could land in Dengzhou and travel overland to Kaifeng, the capital of the Song Dynasty. However, as you can see from this map, the Shandong Peninsula was located very close to the Liao Dynasty at the time. Therefore, in case of departing from this route, there was a risk of going to Liao in some cases. Accordingly, Goryeo requested that the route of the envoys be changed to Mingzhou at the time, which is now Ningbo. And in 1084, the Song Dynasty built Goryeojeong in Mingzhou.



Afterwards, Goryeojeong was built in several cities along the way from Mingzhou to the capital, Kaifeng. In 1117, Emperor Huizong of the Song Dynasty issued an edict to the governor of Mingzhou to establish a government office called Goryeo Office, which was in charge of affairs related to the coming and going of Goryeo envoys, and to set up a guesthouse to entertain Goryeo envoys. So, an edict was issued to establish an institution exclusively for Goryeo envoys called Goryeo official residence. So the Song Dynasty wanted to deepen their relationship with Goryeo. As Song Dynasty treated Goryeo envoys more generously, the number of Goryeo envoys dispatched to Song Dynasty gradually increased. Even in the Song Dynasty, they had to spend a lot of money to entertain them.

At one time, the extent was so severe that Su Dongpo, a representative poet and bureaucrat of the Northern Song, filed an appeal to the court saying that it was very wrong to entertain envoys from Goryeo. To that extent, the court of the Song Dynasty greatly welcomed the Goryeo envoys. Even in this situation, the emperor of Song Dynasty rather elevated the status of the Goryeo envoy to a national envoy, that is, an envoy with an equal relationship with the Song Dynasty, and rather raised the courtesy. Currently, there is a place called Yuehu Park in Ningbo. The Goryeo Officers' Residence in Wolho Park was newly restored and built on the site where the Goryeo Officers' Office used to be. But it shows the exchange relationship between Goryeo and Song Dynasty. And this Goryeo official residence can be said to be a representative example of how the Song Dynasty recognized Goryeo.

Next, let's take a look at the place names of Goryeo that remain in China. We learned about Silla Office, Silla Town, and Silla Temple in the area where many Silla people lived as traces of exchanges between Silla and Tang dynasties. We also looked at a place called Silla Village, which is currently left in Quanzhou, Fujian Province. Similar to Silla Village, place names with the name Goryeo remain in China today. For example, Goryeochak, Goryeochon, Goryeosan, Goryeomyo, or something like that. A researcher named Ye Endian of the Quanzhou Overseas Transportation History Museum, who personally visited these areas and studied them in detail, said that There is no way to accurately confirm whether Goryeo and place names are actually related because there is no specific data left about these areas where Goryeo entered. But based on the genealogy of a specific surname residing in the region, regional historical materials, librarian data such as 『Gudangseo』, and interviews with local residents, an estimate can be made that these areas can be seen as areas where Goryeo people lived in the past, and it is claimed that these are traces of exchanges between Goryeo and the Song Dynasty.

Another study is called Goryeochon in a place called Pukou, Nanjing City, Jiangsu Province. Regarding Goryeochon, it is argue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part of the Goryeo army at the time stayed in this area at the end of the Yuan Dynasty. Also, when a man named Jang Sa-seong caused a rebellion at the end of the Yuan Dynasty, Goryeo troops participated in suppressing the rebellion at the request of the royal court of Yuan Dynasty. And at this time, part of the Goryeo Army occupied Goryeo Village and several places in Pukou, and part of the Goryeo Army stayed in Goryeo Village again. Considering that place names with Silla were created as exchanges between Silla and Tang expanded and the size of Silla society grew, these place names with Goryeo can also be considered traces of exchanges between Goryeo and the Song Dynasty at the time.



Korea in China – Goryeo ~ Joseon

8-3 Interac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the Goryeo Celadon

Next, let's take a look at Goryeo celadon, a representative product of Goryeo. I think many people have heard of Goryeo celadon. Also, many people must have seen this Goryeo celadon in person. Goryeo celadon is a symbol of the splendid culture of the Goryeo Dynasty. At the beginning of the 10th century when Goryeo was founded, there were only three countries in the world that had the technology to make porcelain. It is China, where porcelain was born, Goryeo and Vietnam, which were able to produce porcelain under the influence of China.

For reference, the term pottery we commonly use is a combination of earthenware and porcelain. Earthenware includes all things such as comb-patterned earthenware made in the Neolithic Age. But porcelain refers to shaping a bowl by crushing clay, applying a glaze on the surface of the bowl, and baking it at a high temperature to make the surface of the bowl look like glass. So, in the case of pottery-making technology, it is as long as the history of mankind, but it is said that the history of porcelain began in the Han Dynasty of China, so it is only about 2,000 years old. Nowadays, porcelain is commonly seen and used in our daily lives, but at the time, porcelain manufacturing technology was a high-tech technology among high-tech technologies. It is a skill that no one can imitate.

Let me make a quick comparison with the situation in Europe. Compared to Europe, porcelain was first made in Europe in the early 18th century. And at that time, China's porcelain was imported, and based on this import, research and study were repeated, and it was only in the early 18th century that the technology to make porcelain was finally secured. To put it simply, Europe was able to secure porcelain production technology long after about 1,000 years after porcelain was first invented in China. It was a really great technology at the time.



However, Goryeo was able to produce porcelain, and the porcelain mainly produced in Goryeo was Goryeo celadon. It's the porcelain called Celadon. As you can see from the word celadon, it was blue porcelain. Celadon was also first made in China, and Goryeo was able to produce celadon under Chinese influence. However, celadon produced in Goryeo, unlike Chinese celadon, had a unique color and beauty unique to Goryeo. In the 11th century, Goryeo celadon began to show unique formative characteristics unique to Goryeo. And in the 12th century, Goryeo artisans were able to produce celadon with a unique aesthetic sense through the world's only production method called inlay technique along with clear blue celadon called the so-called celadon blue.

And as the originality, beauty, and excellence of Goryeo celadon became known in mainland China at the time, Goryeo celadon began to be in the limelight as a cherished item of the aristocracy of the Yuan Dynasty including the Song Dynasty. As it was widely used in private houses, a large number of Goryeo celadon could be exported to China. Goryeo accepts the celadon invented by the Chinese Also, Goryeo artisans developed it into a more beautiful work of art in a more original and outstanding way. Goryeo celadon was especially welcomed in mainland China, which can be said to be the origin of celadon at the time.

In particular, in the Song Dynasty, which emphasized the principles of the Literati Governance, it is said that nobles made great efforts to possess outstanding Goryeo celadon. Su Dong-po, a famous poet of the Northern Song Dynasty, considered Goryeo celadon as one of the world's finest along with Goryeo-produced paper. In addition, a person named Seo Geung, who visited Goryeo as an envoy, stayed in Goryeo for about a month and left behind what he saw and heard in a book called『Seonhwa Bongsa Goryeo Dogyeong』. Seo Geung highly praised the celadon blue color of Goryeo celadon in this book, saying, “The blue color of porcelain is called celadon blue in Goryeo, but in recent years, the production technology has become more sophisticated and the coloration has improved.” Likewise, a man named Taepyeongnoin in the Song Dynasty praised Goryeo celadon in a book called『Xuzungjin』, saying, “The color of Goryeo celadon is the best in the world, and even if you want to copy it, you can’t do it.”



As a result, celadon from Goryeo was reexported to China, adding to its popularity. In the Song Dynasty, celadon blue colored pure celadon was popular, but after the middle of the 12th century, inlaid celadon applied with the inlay technique became popular and was loved by the people of the Yuan Dynasty. Here, I would like to briefly talk about the inlay technique, a unique manufacturing technique that only Goryeo had. First, the surface of the bowl is dug out to engrave a picture or pattern. And it is a method of filling the engraved area with white or red soil and baking it. This inlay technique is unique to Goryeo, as it is the only production technique that existed only in Goryeo. Rather, this technique was transmitted to China and borrowed. Since then, Goryeo celadon was able to reach its heyday as it developed greatly until the early 13th century, when the Yuan Dynasty's interference began in earnest, and it also took up a large part in trade with China.

As such, a large amount of Goryeo celadon was brought to China through trade. Goryeo celadon is still being excavated all over China. In particular, many were excavated from Ningbo, Zhejiang Province, which was the center of maritime trade during the Song and Yuan Dynasties, and around Hangzhou and Jiangsu Province. Even in Shandong Peninsula and Liaoning Province where there have been frequent exchanges with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Three Kingdoms period. In addition, Goryeo celadon was excavated from Beijing, the capital of China, Hebei or Jilin, and the inland regions of Inner Mongolia and Anhui. Goryeo celadon has been excavated even in Taiwan. Of course, Goryeo celadon excavated in these regions of China is a small number compared to the size of Goryeo celadon excavated in Korea. However, considering that it was excavated from various places in China, it can be said that it is an example of Goryeo celadon being consumed all over China at the time. And this would be an important measure of how influential Goryeo celadon was at the time.

Goryeo celadon still serves as a bridge between Korea and China. In particular, in 2013, a special exhibition called Goryeo Celadon and Chinese Porcelain Technology Tradition Exchange was held at the Southern Song Museum in Hangzhou. In the special exhibition at the time, fragments of inlaid celadon from the Goryeo Dynasty found near Hangzhou were exhibited in large quantities. Among the fragments, in particular, there were items made of inlaid celadon for the imperial ancestral rites of the Song Dynasty in China at the time, and fragments engraved with the names of the emperor's wife and the palace where the emperor lived. It can be said to be an important document that shows the fact that inlaid celadon was imported and used by the royal family of the Song Dynasty.

Not only that, but a large number of Goryeo celadon, including Goryeo celadon excavated from the region, is still on display in museums in each region of China, drawing attention of the Chinese. As such, Goryeo celadon was influenced by Chinese celadon, but by developing Goryeo's own technology and producing the highest level of porcelain at the time based on this technology, celadon was able to become the best export product of the Goryeo Dynasty, which was loved in China, the country of origin. And it can be said to be an important example of trade between Goryeo and China, as well as cultural exchanges at that time. And to help you understand, I prepared a short video about Goryeo celadon. I hope you can feel the beauty of Goryeo celadon.

Narration: What am I? I was made before the 10th century and was born in the hot heat of 1,300℃, and I wear a soft blue color that others envy. There are many different types depending on how they are made. Yes, I am a Goryeo celadon boasting the color of a thousand years. Goryeo celadon hardened by hardening clay, shaping, adding patterns, baking once in a kiln, applying glaze, drying, and firing again in a kiln. Although celadon originated in the Song Dynasty of China, it was born with a new look thanks to the tenacity and passion of the Goryeo people. How can I make it look more beautiful? How can I make a better celad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ryeo celadon that was born in this way, the crane pattern flying in the blue sky, the soft curve of the waist, and even the delicate rain color. The creativity of Goryeo people has created Goryeo celadon that shines in world history. The blue color of the bowl is called the celadon blue color by the Goryeo people. In recent years, the production has become more sophisticated and the color has improved. And another secret of Goryeo celadon, is the inlay technique. After digging out the pattern with a sharp carving knife, the part is filled with soil of a different color. The skills of Goryeo people that can express details and smoothness as if the painting is alive and moving. Instead of repeating the same pattern, they set the central pattern large in the foreground and placed water, birds, rocks, and people to create a single canvas effect. Wait, names are difficult? Please remember that one thing, the name of the pottery can tell you all the information about the pottery with just one name, in order of type, technique, expressed pattern and use. I am not a simple pottery. I am a Goryeo celadon that boasts the beauty and originality of Korea and the color of a millennium.



Korea in China – Goryeo ~ Joseon

8-4 Relations between Joseon and China

Next, let's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Joseon and China. First of all, Joseon was a dynasty founded by Yi Seong-gye in 1392, and unlike Goryeo, which made Buddhism the state religion, it thoroughly adopted Neo-Confucianism as its ruling ideology and rejected Buddhism on the contrary. This thorough Neo-Confucian-based order played an absolute role in regulat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Ming Dynasty, which emerged after destroying the Yuan Dynasty. Of course, it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Qing Dynasty, which emerged after the Ming Dynasty. So, let's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Joseon and Ming Dynasty first.

In China at the end of the Goryeo Dynasty, the Ming Dynasty was founded in 1368 by Zhu Yuanzhang. It destroyed the Yuan Dynasty established by the Mongols in the north and restored the rule of the Han Chinese while reviving traditional Chinese culture. In particular, during the Ming Dynasty, ideology and politics developed greatly while restoring the traditional Confucian culture of the Han people. Accordingly, Joseon, which made Neo-Confucianism the basis of its governance, took Toadyism diplomacy, sadae (serving the Great, Toadyism) towards the Ming Dynasty. The toadyism diplomacy means the four major characters, that is, small countries serve big countries, and big countries care for small countries. Mencius said of the 'serving the great and caring for the little', “Only a benevolent person can serve a small country as a great country. Only a wise man can serve a great nation with a small nation. Also, those who serve a small nation as a great nation are those who rejoice in the laws of heaven. Those who serve a great nation as a small nation are those who fear the laws of heaven. Those who rejoice in the laws of heaven preserve the world, and those who fear the laws of heaven preserve the kingdom.” As such, the great fea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Joseon and the Ming Dynasty was that it was developed through a relationship called worship diplomacy.

However, in some cases, worship diplomacy is often confused with flunkeyism and understood as if there is no independence or subjectivity of Joseon. But, as can be seen from Mencius' words, Worship diplomacy is a realistic foreign policy for the preservation of the nation. It is by no means inconsistent with independence or subjectivity. Yi Seong-gye, the founder of Joseon, also gave four reasons why he could not attack the Ming Dynasty during the retreat of Wihwa-do,which was the opportunity to destroy Goryeo.

The first reason cited for this was Yisoyeokdae(以小逆大), which means that a small country cannot go against the will of a large country. Therefore, this Joseon Dynasty's Toadyism diplomacy to Ming was a realistic foreign policy chosen as a way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based o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t the time. Joseon responded flexibly to the change in the China-centered international order, which changed from the Yuan Dynasty to the Ming Dynasty, and advocated for worship diplomacy centered on the Ming Dynasty. In the end, this can be seen as a realistic response for self-preservation of Joseon, a new dynasty at the time.

Joseon's Daemyeong diplomacy like this is basically intertwined with the relationship of tribute and installation. When the emperor of the Ming Dynasty enshrined the king of Joseon, Joseon sent an envoy to the Ming Dynasty to pay tribute. In Joseon, when a king ascended the throne, he had to obtain approval from the Ming Dynasty, and Joseon had to use the era name used by the Ming Dynasty. Meanwhile, it was necessary to send envoys to the Ming Dynasty on a regular basis, such as Seongjeolsa, Cheonchusa, Jeongjosa, and Dongjisa, which were called regular envoys. In addition to these regular envoys, formal political subordination was formed by sending envoys to the Ming Dynasty as needed.

Of course, that does not mean that Joseon received direct political interference from the Ming Dynasty. And Joseon was able to trade with the Ming Dynasty through the Ming Dynasty envoys. In addition, it was possible to import advanced cultural products from the Ming Dynasty. So there were also several benefits from the point of view of Joseon. In addition, Joseon envoys who belonged to the envoys were able to exchange various cultures through personal exchanges with Ming Dynasty figures through envoys at the time.

Since then, the relationship between Joseon and Ming has undergone major changes starting with the Imjin War in 1592. Many people should be familiar with the Imjin War. At that time, when Japan invaded Joseon, Joseon requested reinforcements from the Ming Dynasty. After this war, the Ming Dynasty came to exert a much stronger influence on Joseon than before, putting forward the 'Jaejojieun(再造之恩)' that saved Joseon, that is, the grace that saved Joseon from ruin and made it a nation again.



However, the Ming Dynasty also had a weakened national power due to the Imjin War. Also, within the Ming Dynasty at the time, there were many political problems, corruption, and things like this that were confusing. So, in the early 17th century, Nurhachi, who united the Jurchen tribes, founded a country called Later Jin. And it started to fight against the Ming Dynasty of the continent. And Nurhachi's son Hong Taiji changed his country name to Qing and waged a fierce war with the Ming Dynasty. At this time, the Qing Dynasty tried to bring Joseon into its sphere of influence by putting pressure on it, which claimed itself as a faithful vassal state of the Ming Dynasty. When Joseon resisted, Joseon was subdued through force by causing the first Manchu invasion of Korea (Jeongmyo Horan) in 1627 and the second Manchu invasion of Korea (Byeongja Horan) in 1636. In 1644, when the Ming Dynasty was finally destroyed, China once again came under the rule of a foreign tribe called the Jurchen, and Joseon formed a new sadae (serving the Great, Toadyism) towards China relationship with the Qing Dynasty.

Howev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sadae (serving the Great, Toadyism) diplomacy during the Ming Dynasty and the sadae (serving the Great, Toadyism) diplomacy during the Qing Dynasty is that if Joseon's sadae (serving the Great, Toadyism) diplomacy toward the Ming Dynasty was voluntary, the sadae (serving the Great, Toadyism) diplomacy against the Qing Dynasty was made by the Qing Dynasty's coercion. In this way, Joseon continued its sadae (serving the Great, Toadyism) relationship with the Qing Dynasty, which they looked down on as barbarians.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Joseon established a relationship with the Qing Dynasty through the two Manchu invasions, the consciousness of honoring the Ming Dynasty and rejecting the Qing Dynasty continued for a long time even after the fall of the Ming Dynasty.

This is because, as mentioned earlier, Joseon recognized the Qing Dynasty as a country of barbarians, and Joseon itself inherited the Ming Dynasty and regarded itself as little-China. At that time, the consciousness of the ruling class of Joseon was settled by the extreme justification theory that even if the country was ruined, the justification, that is, loyalty should be kept. This does not simply come from the Toadyism sense of the Ming Dynasty, but it can be said that it is based on the thinking of the Joseon ruling class who recognize themselves as little-China. This ideology of honoring Ming and excluding Qing led to the theory of conquering the North in the 17th century. At that time, Hyojong planned an attack on the Qing Dynasty, saying that Joseon should keep its loyalty to the Ming Dynasty and repay the disgrace of the Byeongjahoran(the Manchu war of 1636). Of course it failed. In other words, while Joseon accepted the sadae(Toadyism, serving the Great) of the Qing Dynasty as reality, they did not recognize the sadae of the Ming Dynasty and the sadae of the Qing Dynasty as the same, and maintained the attitude of not recognizing the Qing Dynasty as China for a long time.

Even in this situation, envoys from Joseon and Qing dynasties frequently interacted. From 1637 to 1893, Joseon dispatched a total of 507 envoys to Qing over 256 years. Also, considering the imperial envoy sent by Qing to Joseon, it can be seen that the two countries had much more contact. In this way, when human exchanges are made through interactions of envoys called Sahaeng, mutual cultural exchanges are made and influenced by their comings and goings.

In particular, there was active cultural exchange between scholars from the two countries. There is a place called Liulichang in Yanjing, which is now Beijing. It was also the center of learning and culture in the Qing Dynasty at the time. For this reason, envoys and intellectuals of Joseon always stopped by this place and interacted with intellectuals of the Qing Dynasty whenever they visited Yanjing as envoys. A place called Liulichang was a place of humanities exchange between Joseon and Qing Dynasty intellectuals. For example, Liulichang and many alleys around it were places where representative Silhak scholars in the late Joseon Dynasty, such as Hong Dae-yong, Park Ji-won, Park Je-ga, Seo Ho-su, and Yu Deuk-gong, and other intellectuals of the Northern School of Joseon, shared poetry and prose with writers from the Qing Dynasty and shared their thoughts. Since they were unable to communicate, they were able to freely exchange various discourses, ranging from academics, culture, art, and even philosophy, which are mutual interests, while having conversations in writing, and through this, they were able to share friendships.

In particular, among the humanities exchanges between intellectuals of the two countries, the exchange of an intellectual from the Northern School, called Hong Dae-yong, was very prominent. Hong Dae-yong created a great sensation in the Joseon intellectual community at the time by leaving a book called『Geonjeong-dong Pildam』, in which he communicated in writing with intellectuals of the Qing Dynasty such as Eom Seong, Yuk Bi, and Ban Jeong-gyun near Liulichang. In particular, the exchange between Hong Dae-yong and Eom Seong continued through three generations even after their death, and became a symbol of literary exchange between Joseon and Qing Dynasty. Even in a book called『Ilhajegeumhapjip』, it is said that Um Seong shed endless tears after taking out a letter from Hong Dae-yong from under the blanket he was covering before he died and asking him to read it. In addition to this, such intellectuals as Park Ji-won of Joseon, Park Je-ga, and Kim Jeong-hee exchanged with famous literary figures of the Qing Dynasty at the time. As they influenced each other, they were able to continue deep exchanges.

And in the latter half of the 19th century, as the Sinocentric order began to collapse due to the invasion of Asia by Western powers, the political sadae(Toadyism, serving the Great) relationship between Joseon and the Qing Dynasty was also severed. And then Joseon was able to escape from the shadow of the Chinese order.

Korea in China – Goryeo ~ Joseon

8-5 Joseon Envoys and Korean-Chinese Cultural Exchange

Then, what traces remain in China related to Joseon? This time, let's follow the path of the Joseon envoys. In 2014, the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enyang, in order to promote cooperation and friendly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held the 1st Envoy Cultural Festival with the theme of exchanges called envoys, which were active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event consisted of an international conference in which envoy experts and scholars from the two countries participated, as well as a music performance and an exhibition of records of envoy exchanges. And it was able to get a lot of good reviews from people. And in the case of the second cultural festival that was held the following year, as it was upgraded to an event sponsored by the central governments of these two countries, the scale of the event not only increased, but also various events such as these were added, in which participants directly explored the roads traveled by envoys from Joseon.

Events related to envoys in the Joseon Dynasty continued even after that. For example, in 2017, as part of a cultural exchange event between Korea and China, a youth envoy program was conducted to visit the envoy route from Dandong to Shenyang in China. In 2018 and 2019, college students from both Korea and China were able to follow in the footsteps of envoys from the Joseon Dynasty and provide an opportunity to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through cultural exchange. And in November 2020, when the COVID-19 was in full swing, the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enyang and the People's Association for Friendship with Foreign Countries in Liaoning Province held an exhibition titled "Long, long journey, endless friendship" to commemorate the history of envoys from the two countries. As such, the historical legacy of envoys from the Joseon Dynasty not only resonates deeply with the friendship between Korea and China today, but also serves as an important bridge in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n, how was the appearance of envoys in the Joseon Dynasty and how was the ex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rough envoys? First of all, envoys in the Joseon Dynasty can be divided into Jocheonsa in the Ming Dynasty and Yeonhaengsa in the Qing Dynasty according to the view of China in Joseon. When speaking of Joseon's view of China, it is talking about how Joseon perceived the dynasty in the Chinese continent at that time.

First of all, Joseon recognized the Ming Dynasty as the authentic dynasty of China, so it voluntarily entered into a sadae(serving the Great, Toadyism) relationship, and it was named Jocheonsa because it was going to the Ming Dynasty, the country of the Son of Heaven from the position of a subject. On the other hand, the Qing Dynasty was a foreign country founded by barbarians, and Joseon had no choice but to establish a sadae relationship, not the sadae relationship that Joseon voluntarily acted on. The envoys during the Qing Dynasty recognized that they were only going to Yanjing, the capital of the Qing Dynasty. And that's why it was called Yeonhaengsa. It implies that we cannot show courtesy towards the Qing Dynasty.

In addition, both Jocheonsa and Yeonhaengsa consist of regular envoys, in which envoys were dispatched on a regular basis, and temporary envoys, in which envoys were sent on special occasions. And in the case of regular envoys, they are dispatched on a regular schedule, such as an important festival or the birthday of an emperor or empress. Usually, envoys were dispatched about four times a year. And after the Qing Dynasty moved the capital to Yanjing in 1645, regular envoys were integrated once a year by the royal court of the Qing Dynasty. In this way, Joseon was able to maintain political and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Ming and Qing dynasties through the dispatch of envoys. And maintaining such political and diplomatic relations was the most basic and important purpose of dispatching envoys.

Of course, through the dispatch of envoys, Joseon was able to engage in economic exchanges with China called tributary trade. In addition, various cultural exchanges were also possible through personal exchanges among the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envoys. In addition, envoys served as an important channel through which various nationally necessary information, such as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t the time, could be collected. However, among the various purposes of envoys, what is particularly noteworthy is the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rough envoys. At that time, envoys from Joseon could stay in the capital for 40 days in the case of the Ming Dynasty and up to 60 days in the case of the Qing Dynasty. During this period, envoys were able to engage in various private activities in addition to the basic public activities required.



In particular, by interacting with Chinese scholars, they were able to exchange various forms of culture, although they communicated through writing because they could not communicate in the language. Above all, they were able to broaden their knowledge through exchanges with Chinese intellectuals. In the case of Damheon Hong Dae-yong, a representative Silhak scholar of Northern School, it is said that he spent 33 days out of the 62 days he stayed in Yanjing interacting with intellectuals of the Qing Dynasty. You can see how active the exchanges between the intellectuals of the Qing Dynasty and the Joseon envoys were.

However, cultural exchanges between Joseon and China through envoys show slightly different characteristics during the Ming Dynasty and the Qing Dynasty depending on the background of the times and Joseon's view of China. First of all, cultural exchanges between Joseon and the Ming Dynasty were greatly influenced by the situation of Joseon and Confucianism in the early days of the founding of the country. This is because Joseon, which had Neo-Confucianism as its ruling ideology, tried to establish Confucianism and Neo-Confucian system ideology through exchanges with the Ming Dynasty in the early days of its founding, and to establish a political system based on this.

In particular, in Joseon, it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reorganize the culture and system into Confucian ones and to train Confucian-like bureaucrats, so cultural exchanges with the Ming Dynasty also focused on this part. For them, they had to import books on politics, law, history, medicine, and even astronomy, including the Confucian scriptures, the Four Books and the Five Classics, from the Ming Dynasty. For example, in 1426, the 8th year of King Sejong's reign, Joseon demanded the Ming Dynasty such books as『The Daejeon of the Four Books』,『The Daejeon of the Five Classics』,『The Daejeon of Seongri』, and『Songsa』. In response to this demand, the Ming Dynasty sent books called『The Daejeon of the Librarian』and『The Daejeon of the Five Classics』, as well as the『Autonomous Tonggamgangmok』. As such, Joseon focused its efforts on importing books mainly through envoys from the Ming Dynasty. Cultural exchanges with the Ming Dynasty had no choice but to be Confucian-centered and Neo-Confucian-centered exchanges based on the four generations.



However, after the fall of the Ming Dynasty and the arrival of the Qing Dynasty, many changes took place. First of all, as I mentioned earlier, there comes a big change in Joseon's view of China. Because Joseon regarded the Qing Dynasty as a barbarian, culturally, it was considered that Joseon was superior to the Qing Dynasty. Even though it went through two wars, the First Manchu Invasion and the Second Manchu Invasion, he had a fantasy about the Ming Dynasty and considered itself as a small China. And based on this perception, it ignored the culture of the Qing Dynasty further.

In fact, there are many records of Yeonhaengsa. According to these records, many intellectuals in Joseon who have traveled to Yeonhaeng ignore the culture of the Qing Dynasty. Do you know a person called Yeonam Park Ji-won, a representative Silhak scholar of the Joseon Dynasty? Yeonam Park Ji-won left a very famous travel record called 『Yeolha Ilgi』. 『Yeolha Ilgi』 is a plan written by Park Ji-won as he traveled through Yanjing in 1780, the 4th year of King Jeongjo, to a place called Yeolha, the villa of the emperor of the Qing Dynasty. Park Ji-won also wrote in 『Yeolha Ilgi』, “How come the scholars of Joseon only look for the Ming Dynasty and reject the Qing Dynasty when the culture of the Qing Dynasty is so thriving?” It showed well what kind of perception the intellectuals of Joseon had toward the Qing Dynasty at the time.

The cul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gradually deepened after the 18th century. There may be several factors for this, but first of all, study and technology of the West began to be transmitted in earnest to the Qing Dynasty. As a result, in the Qing Dynasty, a new academic trend was born as Silhak and historical studies, which emphasize the search for truth, developed. And as the academic trend of the Qing Dynasty was transmitted to Joseon through Yeonhaengsa, a new academic trend could be created in Joseon as well.

In particular, the academic atmosphere of Joseon changed greatly as the Silhak faction was formed around such people as Hong Dae-yong, Park Ji-won, Park Je-ga, Lee Deok-mu, Yu Deuk-gong, and Park Gyu-su, who were influenced by the academic trend of the Qing Dynasty. In addition, as these Silhak intellectuals began to participate in the Joseon envoys, cultural exchanges with the Qing Dynasty deepened. And as I briefly mentioned earlier, Hong Dae-yong spent half of his stay in Yanjing interacting with intellectuals from the Qing Dynasty. In addition to Hong Dae-yong, Silhak intellectuals such as Park Ji-won, Park Gyu-su, and Park Je-ga were able to build friendships by interacting with many Qing intellectuals during their stay in the Qing Dynasty. In this way, as the Yanjing activities by Yeonhaengsa increased, intellectual exchanges between Joseon and Qing Dynasty were naturally active.

The place where they usually met was a place called Liulichang, which I mentioned before, in addition to the Joseon Embassy as an official place for diplomacy. To say that again, Liulichang is a place similar to Insa-dong in Korea. As a distribution center for not only antiques, but also books, calligraphy-related items, paintings and calligraphy, stationery supplies, that is, paper, brushes, inkstones, and ink, it was a place that Joseon scholars wanted to visit at least once. Therefore, the intellectuals who participated in the Yeonhaengsa definitely visited Liulichang, and exchanges with intellectuals of the Qing Dynasty were formed naturally centered on Liulichang.

And in the late 18th century, exchanges between the intellectuals of the two countries became an everyday scene of Yeonhaengsa. There is a painting called “Sehando” by Chusa Kim Jeong-hee, which will be discussed later. This “Sehando” is such a work that well shows the aspect of intellectual exchange between Joseon and Qing Dynasty, which was active at the time. As such, cultural exchanges between Joseon and China showed different aspects during the Ming Dynasty and the Qing Dynasty. In particular, after the 18th century, various internal and external circumstances changed, and Joseon intellectuals were able to have deep exchanges with Qing intellectuals through envoy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path of envoys in Joseon was the path of cultural exchange.



Korea in China – Goryeo ~ Joseon

8-6 "Chusa" Kim Jeong-hee and Literary Exchanges Between Korea and China

Lastly, let's talk about Chusa Kim Jeong-hee, a Joseon intellectual who is a symbol of exchange between Joseon and Qing intellectuals. Kim Jeong-hee was a person from the late Joseon Dynasty who was famous all over the world for his excellent calligraphy. I think many people probably know Chusa Kim Jeong-hee. Chusa Kim Jeong-hee, of course, was a person who showed natural talent not only in calligraphy but also in various studies, poetry and painting, and such arts. He is such a person who has left outstanding achievements in the field of study called epigraphy. So, scholars of the Qing Dynasty who interacted with Kim Jeong-hee at the time called Kim Jeong-hee 'Haedong Jeil Tong-yu', meaning that he was the best scholar in Joseon who was proficient in various studies including Confucianism.

In 1809, at the age of 24, Kim Jeong-hee was included in Yeonhaengsa for the first time and was able to visit Yanjing. And he was able to interact with the intellectuals of the Qing Dynasty through envoys. Kim Jeong-hee was originally interested in the Qing Dynasty under the influence of Park Je-ga, who was a master of Silhak, and was very active in exchanges with scholars of the Qing Dynasty. In particular, during the 60 days he stayed in the Qing Dynasty as Yeonhaengsa, Kim Jeong-hee met and interacted with a person called Weng Fang-gang, a prominent scholar in the Qing Dynasty at the time. Weng Fang-gang was also a scholar who was well versed in such areas like calligraphy, literature, and epigraphy. The meeting between Kim Jeong-hee and Weng Fang-gang was also possible through the introduction of Park Je-ga, who was Kim Jeong-hee's teacher. When Kim Jeong-hee visited Yanjing, Weng Fang-gang was already close to 80 years old, but he was deeply moved by Kim Jeong-hee's academic and artistic sophistication. Although it was a short period of about two months, the two formed a relationship of teacher and disciple. And after Kim Jeong-hee returned to Joseon, he continued to interact by exchanging letters.

Along with a person named Weng Fang-gang, a scholar of the Qing Dynasty named Ruan Yuan also had a relationship with Kim Jeong-hee. A person named Ruan Yuan said that he was greatly surprised and delighted with the genius and high academic level of Kim Jeong-hee, who was 22 years younger than himself. And Kim Jeong-hee also formed a teacher-pupil relations with Ruan Yuan. It is said that exchanges between Kim Jeong-hee and Ruan Yuan continued for nearly 40 years until Ruan Yuan died. And Ruan Yuan is also evaluated as having a great influence on Kim Jeong-hee's life, philosophy and art.

Of course, besides Weng Fang-gang and Ruan Yuan, other intellectuals in the Qing Dynasty wanted to interact with Kim Jeong-hee. While Kim Jeong-hee was staying in Yanjing, Kim Jeong-hee's house was full of literary figures from the Qing Dynasty who came to meet Kim Jeong-hee. And among Kim Jeong-hee's works, there is a symbolic work that shows how the intellectuals of Joseon and Qing Dynasty interacted well.

It is a painting called “Sehando” that Kim Jeong-hee drew as a gift to Lee Sang-jeok, a disciple and interpreter who devoted himself to him during his exile in Jeju Island. It is a painting expressing the unchanging loyalty of the disciple Lee Sang-jeok with pine trees and Arborvitaes that do not wither even in winter. Originally, “Sehando” was a small painting, measuring about 70 cm in width and 23 cm in height. By the way, the disciple Lee Sang-jeok took “Sehando” with him on a business trip to Yanjing. At a meeting hosted by an intellectual of the Qing Dynasty with whom he was close, he took out “Sehando” and showed it to the intellectuals of the Qing Dynasty. And 16 intellectuals of the Qing Dynasty who saw “Sehando” left their impressions of “Sehando” next to the picture. That is how the cultural exchange between Joseon and Qing Dynasty, which began with Kim Jeong-hee, led to his disciples. In the end, with their appreciation, “Sehando” was changed from 70cm to a large painting with a total length of nearly 10m. It is a part where you can know the minds of the intellectuals of the Qing Dynasty about Kim Jeong-hee's works and the feelings about Kim Jeong-hee. Currently, “Sehando” is designated as National Treasure No. 180 and is one of Kim Jeong-hee’s representative works.

Kim Jeong-hee is still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cultural ex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today. Let me give you a few examples. In June 2019, in Beijing, the capital of China, an exhibition called “A Conversation between Chusa Kim Jeong-hee and Qing Dynasty Writers” was held for cultural ex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This exhibition was especially meaningful in that it was held at a time when Korea-China relations, which had cooled rapidly after the THAAD issue in 2016, were being restored. In addition, the fact that the exhibition was held at the China Art Museum, which is said to be the most prestigious among the national art museums in China, is an example that shows how Kim Jeong-hee is evaluated in China. It is said that at the time, an average of 5,000 people visited the exhibition per day. It is said that a total of 300,000 Chinese people visited for two months to see Kim Jeong-hee's work.



Finally, you will see a picture and watch a video. This painting is called “Chusa Donggwido,” which depicts the scene in which the literary figures of the Qing Dynasty invited Kim Jeong-hee to say goodbye before he left the Qing Dynasty. In the title of the work called “Chusa Donggwido,” “Chusa” refers to Kim Jeong-hee. In this picture, the person sitting in the middle is Kim Jeong-hee. And if you look at the picture again, you can see Kim Jeong-hee surrounded by literary figures of the Qing Dynasty. For the writers of the Qing Dynasty, the meeting with Kim Jeong-hee was as meaningful as that. It can be said that it is such a work that shows that it was very regrettable that Kim Jeong-hee left Yanjing and broke up. Maybe that's why they left a lingering impression of the time like this? And the video to watch together is a video that shows Kim Jeong-hee's “Sehando” mentioned earlier in detail. When you watch the video, you will be able to see the impressions written by 16 intellectuals of the Qing Dynasty.

Lee Soo-kyung: National Treasure No.180, 'Sehan-do', an extraordinary masterpiece.
The late Son Se-gi has owned 'Sehan-do' since the 1970s
Mr. Son Chang-geun, his eldest son, cherished it and he donated it without any conditions in 2020. The brilliant and intelligent, Kim Jung-hee as the son of noble family, he was framed by Andong Kim Moon, an opposing force When he was 55 years old, he went to Jeju Island to be exiled. That was the most severe exile which is enclosed in a thorn hedge at lonely island in the distant sea. In other words, he was imprisoned on a remote island where his family could not go together or go outside.
In the Joseon Dynasty, exile was not very rare, but there was no deadline.
Three years later, no news came to Kim Jung-hee. Rather, there have been constant appeals to put Kim Jung-hee to death. Even in this situation, there was a disciple who treated Kim Jung-hee as usual even he was a sinner. He was Lee Sang-jeok, a Chinese interpreter. He sent books that are not easy to get even in China to Kim Jung-hee in Jeju. What did the book mean to Kim Jung-hee?



He always found the source of learning and art in books. Also, books would have been like friends who soothe solitude for him while he was exiled. Kim Jeong-hee praised Lee Sang-jeok's unchanging loyalty by quoting famous phrase 'Sehan Yeonhu Jisongbakjihujo' in "Analects of Confucius.“ and he expressed it in pictures.

Sehan means cold weather in the middle of winter. So this phrase means, 'People only know that pine trees and Arborvitaes do not wither until the cold weather in mid-winter.'

He wrote in detail why he came to draw this in strong, firm handwriting in the box on the pasted paper on left side of the painting. How did Kim Jung-hee express this phrase in a picture?

He put two pine trees and two Arborvitaes on the left and right sides of the shabby house with round doors. Does it look like an easy drawing?

If you look closely, you'll see a dry, dense brushstrokes representing tree trunks and leaves. A dry brush without water is covered with Chinese ink(dark ink) to express it sharply. It may seem easy at first glance, but it's really hard to handle a dry brush.

This style of writing comes from Kim Jung-hee's long-established writing skills.

Kim Jung-hee conveys the dry and desolate atmosphere of Sehan which is the coldest winter day. He found the best way to write. This painting is rare among Joseon Dynasty paintings, because it clearly revealed title and production motive.

On the right side of the picture, he wrote the title "Sehan-do" and wrote "Look at this first, Wandang", saying that he painted it for Lee Sang-jeok.

There is a seal stamped written 'Junghee' at the bottom. Kim Jung-hee used to use various seals. There are also four seals on Sehan-do.

In addition to his name "Jung-hee" engraved, there are "Wandang" and "Chusa" seals engraved with pseudonym, and a phase seal "Jangmu Sang-mang".
The most notable part is the "Jangmu Sang-mang" at the right side of bottom of the picture. It means, "Let's not forget each other as time passes by."
Kim Jung-hee would have stamped the seal with this feeling. In this way, Kim Jung-hee carefully completed 〈Sehando〉 with the most suitable title, material, brushstroke, and seal to convey his intention. This is why 〈Sehando〉 is considered the best literati painting that expresses meaning and spirit in paintings.
Lee Sang-jeok took 〈Sehando〉 with him on his seventh overseas trip to China.
And at a meeting hosted by a close writer from the Qing Dynasty, he took out 〈Sehando〉 and showed it to people. Sixteen writers from the Qing Dynasty who participated in the event or saw the painting wrote their impressions.
The writings correspond to the third part of the Sehando scroll.
Kim Jung-hee gave 〈Sehando〉 to his student Lee Sang-jeok and it was later kept by Lee Sang-jeok's student, Kim Byung-sun and it was passed on to his son, Kim Jun-hak.
Kim Jun-hak wrote a poem "Wangdang Sehan-do" in 1914 to commemorate his long illness and recovery.
That paper is attached in front of 〈Sehando〉 painted by Kim Jung-hee.
Thrity years later since then and 100 years after Sehando was made, in 1944, Son Jae-hyung was given back "Sehando" by Japanese named Fujitsuka Chikashi.
In 1949, after independence, Son Jae-hyung asked the leading intellectuals of the time such as Jeong In-bo, Lee Si-young, and Oh Se-chang, to write their appreciation of Sehando. There are many empty spaces in the 〈Sehando〉 scroll.
Son Jae-hyung would have wanted to receive more writing. I hope you can fill this space that Son Jaehyung couldn't fill with your feelings.



Professor Jang Youngduk: Then, let's me summarize what we've learned today. Goryeo was able to interact with China's Song and Yuan dynasties in various ways for about 500 years. In particular, it was able to experience cultural diversity by coming into contact with the cultures of two different peoples. In Ningbo, Zhejiang Province, China, Goryeo Hall, which hosted Goryeo envoys, has been restored and remains. At that time, you can see Goryeo's active foreign relations and Song Dynasty's perception of Goryeo. Today, there are many place names with the name Goryeo in China. This can be said to be a trace showing the relationship with Goryeo in the past. And Goryeo celadon was the most traded item in Goryeo at the time and was greatly loved by the ruling class of the Song Dynasty.

Joseon had exchanges with the Ming and Qing dynasties for about 500 years. Joseon's perception of China, which had Neo-Confucianism as its ruling ideology, and its relationship with China changed depending on Joseon's view of China. The relationship between Joseon, Ming, and Qing was a worship relationship, and envoys were sent regularly and irregularly. In the case of the Ming Dynasty envoys, they were called Jocheonsa, and in the case of the Qing Dynasty envoys, they were called Yeonsasa. Joseon was able to contact various cultures through the dispatch of envoys and active cultural exchanges through human exchanges. Kim Jeong-hee is a representative figure of people-to-people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t the time, and he can be said to well show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al exchanges through envoys. And he is also affecting exchanges between Korea and China today. Thank you for listening this lecture today.



讲义

中国中的韩国 -高丽~朝鲜

8-1 高丽和中国的关系

大家好，我是讲韩国中的中国和中国中的韩国的张英德。今天是第8周的课程，我们将了解一下中国中韩国的痕迹，其中从高丽时代到朝鲜时代，在与中国的交流中留下的痕迹。所以今天的课程是了解高丽和朝鲜时代与中国之间的关系。另外,我想寻找并理解中国留下的 两个时代交流的痕迹。

特别是高丽，除了外交交流的痕迹外，还了解了高丽青瓷等文化遗产。此外，我们还将学习一下朝鲜方面在明朝和清朝时访问过的使节团的痕迹，以及使节团的痕迹，而人员交流的痕迹等。所以通过这次课程，可以了解并谈论高丽和中国 以及朝鲜和中国的关系。还有高丽以及朝鲜和中国交流留下的痕迹。最后,可以理解高丽和朝鲜时代的历史交流 对现在的韩中交流产生什么样的影响。

上一节课，我们了解了留在中国的韩国古代国家 高句丽和新罗的痕迹。我们可以看到，韩半岛的古代国家早在1500多年前 就通过与中国大陆的频繁交流相互影响。而且还可以看到中国到处都留有他们的痕迹。那么接下来，让我们先了解一下高丽时代和朝鲜时代与中国的交流情况，再了解一下这些痕迹现在是如何留下的。

我们先来谈谈高丽。高丽在918年王建建国。在1392年李成桂建立朝鲜王朝之前，高丽王朝存续了474年。高丽在韩半岛存续时，中国于 907 年唐朝灭亡后，经历了五代十国这一非常混乱的时期，最终出现了宋朝。此后，宋朝灭亡，元朝建立了。高丽主要与宋朝和元朝进行交流。高丽后期，由于元朝的入侵，高丽被复属，也受到了元朝的影响。那么高丽和这些宋朝以及元朝的关系会如何呢？



首先来看一下高丽和宋的关系。在高丽时代，中国有一个宋朝统一了所谓五代十国的混乱局面，北方的契丹族、女真族以及蒙古族等北方势力 正在扩大自己的势力。特别是高丽和宋的关系受到了当时在中国大陆东北地区培养势力的契丹族 和契丹族的辽代和女真族的金代等北方势力的影响。高丽和宋朝都牵制着这些北方势力，这种共同目的使两国的交流成为可能。高丽通过与宋国的关系牵制辽、金、这两个国家，同时通过与宋国的贸易在经济、文化上获得了很多利益，宋国也为了牵制北方势力，积极利用了与高丽的关系。

更具体地说，就是宋朝的首都开封。开封时期，契丹族的辽朝占据了北方，高丽和宋朝都有牵制辽国的共同目的。但是根据与辽国的关系，断绝外交关系后反复恢复等，各自展开实利外交。例如，高丽在与辽国的三次战争中向宋国请求军事帮助，但宋国害怕辽国的进攻，所以回避了高丽。每当这时两国的外交关系就会断绝。当然,高丽在宋朝请求军事帮助时,也有消极应对的一面，所以在那个时期外交关系也断绝了。

但是随着北宋的首都开封挤掉了契丹族的辽朝，沦陷到了被占据北方地区的女真族的金朝，宋朝将首都迁移到了现在的杭州临安，并转移了首都，重建了南宋。所以宋朝根据前期和后期分为北宋和南宋。在12世纪上半叶女真族的金国势力迅速膨胀的情况下，高丽和宋国在外交和军事上遇到了这样的困难。



特别是宋朝的首都开封被金国攻陷，甚至宋朝的两位皇帝被金国俘虏。后来修建的这棵南松，也是为了躲避金国军队的追击，经历了不少困难。在这种危机状况下，南宋朝廷提议高丽进行军事合作。此时，高丽拒绝了南宋的援助请求。因为高丽也考虑到当时正在成为新强者的金朝外交关系，没有积极出面维持与南宋的关系。南宋也不接受高丽使臣，两国的外交关系自然断绝，正式的使臣往来最终中断。

但是,两国之所以能够不顾这种情况持续进行交流，除了这种政治实利外交之外，在经济和文化方面的交流也非常活跃。正如我所说,政府之间的正式外交关系中断 并不意味着两国所有关系都断绝了。当时通过现在的西海，人和物资的移动不断，之所以能够实现，就是因为商人们的交易。两国朝廷在外交关系断绝的情况下,也不能派遣正式使节，因此通过委托商人传达朝廷的文件或口头指示的方式，向对方传达了本国的政治意愿。这种沟通方式反而对通过外交使节提出的很难提出的提案或要求没有负担，从这一点来看,是非常有用和灵活的方式。

当然，从商人的立场来看，比起单纯的经济理由寻找对方国家，带着外交任务访问对方时能够得到的待遇更好，而且恢复正式外交关系时可以期待更多的贸易机会，因此积极参与了这种朝廷的使命。特别是宋朝商人的高丽往来更加频繁。据史书《高丽史》记载，260多年来，宋朝商人120余次5千多人来到高丽。当时高丽在文化上非常繁荣，因此成为了宋朝商人的重要交易对象。因此,当这两个国家的政治关系恶化时，商人的交易也可以持续进行，以此为基础,两国可以持续进行交流。



下面是高丽和宋代以后元朝的关系。进入13世纪后，发生了使高丽对外关系发生巨大变化的东亚局势的变化。 在北方作为游牧民族生活的蒙古族成为了新的强者。您应该很了解1206年蒙古族被分为多个部落的成吉思汗。成吉思汗建立了蒙古帝国，接着灭亡女真族建立的金国，征服中国大陆后建立了元朝。高丽和元朝的外交关系始于1219年。当时被蒙古追赶的契丹族于1216年侵入高丽，1219年高丽和蒙古形成联合军，高丽和蒙古被联合军扫荡,以此为契机,两国签订了兄弟盟约。这是高丽和元朝的首次外交关系

但问题是蒙古此后对高丽提出了6项过分的要求。即，把高丽统治阶层的子弟当作人质，报告高丽户口调查，蒙古军远征时高丽需要军事援助 与此同时，还要提供军粮，还有设立达鲁花赤 即所谓"达鲁花赤"，就是管理为了干涉高丽内政而驻守高丽。从高丽的立场来看,大部分都是无法轻易答应的要求。也就是说,要非常积极地干涉高丽。此后高丽和蒙古的关系进一步恶化。

特别是1225年,被称为“箸告与”的蒙古使臣 为了要求贡品而进入了高丽。在进入高丽后回蒙古的路上，在现在的鸭绿江附近被一群山贼杀害。而且以这次被杀事件为契机，高丽和蒙古的关系变得紧张起来。 此后1231年蒙古入侵高丽，高丽从开京迁至江华岛，与蒙古展开了激烈的抗争。但是1259年高丽最终与蒙古进行了讲和，蒙古在1271年建立了元朝，开始干涉高丽内政。而元朝的干涉，则延续了大约一百年的时间。元朝在干涉高丽内政期间，将王族或贵族子弟当作人质，让他们留在元朝，并将高丽的女人和宦官作为贡品送出去。



元朝干涉高丽期间，包括高丽统治阶层在内的贡女和宦官等 很多高丽人流入元朝。但讽刺的是,由于这种强制的人员交流，两国之间的文化交流非常活跃。特别是随着元朝皇室内部高层的高丽人越来越多，高丽的风俗也自然而然地传播到了元朝，元朝人开始模仿当时干练、高档的高丽的风俗和文化。像这样在元朝社会流行的高丽风俗当时被称为高丽样。可以说这是反映高丽风俗在元朝社会流行程度的一个事例。另外，到了元朝末期，高丽的女人逐渐增多，在元朝社会，衣服、鞋子、帽子或使用的器物都随着高丽流行起来，通过各种史料，现在也可以看到对高丽样的描写。由此可见，高丽的风俗和文化在元朝社会非常流行。

当然，从元朝回到高丽的人当时也向高丽社会传播了元朝的文化。蒙古文化由他们传播，并在高丽社会流行，我们称之为蒙古风。虽然是元朝干涉内政的强压性人员交流，但这两国人员交流当然也存在可以实现相互文化交流的一面。高丽在大约500年的时间里，可以与中国宋朝和元朝进行多种方式的交流，特别是通过接触两个不同民族的文化，可以体验到文化的多样性。



中国中的韩国 -高丽~朝鲜

8-2 高丽使馆和中国内高丽地名

今天这个时间，让我们一起来看看宋代高丽使臣们居住的地方,高丽使馆，以及现在中国地名上仍然存在的高丽痕迹 以及高丽青瓷等。首先，让我们来谈谈高丽使馆。浙江省是中国沿海地区，这里有一个叫宁波的城市。宁波这个城市就叫宁波，我们用汉字说话。宁波是当今世界货物吞吐量的代表性国际贸易港。宁波现在作为港口城市还是很有名的，但过去也是国际贸易频繁的主要国际贸易港之一。唐朝时期，新罗、日本和东南亚的船经常往来于此，管辖海上贸易的官厅"市舶司"也设在宁波。宋代以后，直到元朝，高丽贸易船一直出入此地，而且日本的僧侣也来这里留学。

宁波现在有一个跟高丽有关的地方。这里就是高丽使馆。宋朝时期，高丽使臣们曾在这里停留过。宋朝也为了维持与高丽的友好关系，对高丽进行了无微不至的对待。因此，在高丽，想成为宋朝使臣的人逐渐增多。随着高丽使臣数量的增加，宋朝为了供高丽使臣们住宿，建造了叫做高丽亭的建筑。最初的高丽亭位于山东的登州，距离当时北宋的首都开封很近。因为登州离韩半岛很近，所以高丽使臣们可以登陆登州，通过陆路到达宋朝的首都开封。但是看这张地图就能知道，山东半岛当时与辽国也处于非常近的位置。因此，如果偏离这条航线，在某些情况下可能会有前往辽国的危险，因此高丽要求将使臣的路径改为现在的宁波当时的明州。然后，1084年宋朝在明州建造了高丽亭。

此后，高丽亭建在明州至首都开封的各个路口城市。1117年，宋朝皇帝徽宗向明州太守下达敕令，设立负责高丽使臣往来事务的高丽司官厅，以及接待高丽使臣的迎宾馆，高丽使馆 就是只为高丽使臣建造。所以宋朝想进一步加深与高丽的关系。宋朝对高丽使臣的待遇更加优厚，派遣到宋朝的高丽使臣数量逐渐增加，宋朝为了招待他们，不得不支出很多费用。

曾几何时,由于其程度严重,北宋的代表诗人兼官僚苏东坡 向朝廷提出上诉,认为接待高丽使臣是大错特错。由此可见，宋朝廷对高丽使臣的盛情款待。在这种情况下，宋朝皇帝反而将高丽使臣的地位升格为国信使，即与宋朝平等关系的使臣，反而提高了礼遇。现在有一个叫宁波市月湖公园的地方。位于月湖公园内的高丽使馆是在高丽使馆所在地重新复原后建造的，充分体现了高丽和宋朝的交流关系。此外，高丽使观可以说是宋朝如何认识高丽的 代表性事例。

下面我们来了解一下留在中国的高丽地名。我们之前作为新罗和唐朝交流的痕迹，学习了新罗人聚居地区的新罗所、新罗坊、新罗院等，还了解了现在福建省泉州的新罗村。和新罗村一样，现在中国到处都留有高丽这个名字的地名。例如高丽着、高丽村、高丽山、高丽墓等地名。曾亲自访问这些地区进行详细调查和研究的 泉州海外交通史博物馆研究委员叶彦甸认为，由于没有关于高丽地区的具体资料，因此无法准确确认高丽和地名是否有关联，但根据居住在该地区的特定姓氏的族谱、地区史料以及《旧唐书》等史书等 资料内容和相关地区居民的采访等推测，这些地区可以看作是过去高丽人居住过的地区，而且这是高丽和宋朝交流的痕迹。



另一项研究是在江苏省南京市浦口，名为高丽村 关于高丽村，有主张说元朝末期当时高丽军的一部分 可能还停留在这一地区。另外，元朝末期一个叫张士诚的人发动动乱时，应元朝朝廷的要求，高丽军队参与镇压动乱。因为当时高丽军的一部分占领了浦口的高丽村和很多地方，这时高丽军的一部分又停留在高丽村。如果考虑到随着新罗和唐的交流扩大、在唐新罗社会规模的扩大，出现了新罗的地名,那么加入高丽的地名也是 高丽和宋朝交流的痕迹。



中国中的韩国 -高丽~朝鲜

8-3 高丽青瓷和韩中交流

下面我们来了解一下代表高丽的高丽青瓷。我认为很多人听过高丽青瓷，很多人也亲眼看过高丽青瓷。高丽青瓷可以说是代表高丽时代兴盛 当时华丽文化的象征。高丽建国的10世纪初期，全世界只有3个国家 拥有制造瓷器的技术。就是瓷器诞生的中国和受到中国的影响，能够生产瓷器的高丽和越南。

作为参考，我们通常所说的陶瓷是陶器和瓷器的合称 陶器包括新石器时代制作的栉文陶器等, 但瓷器是将泥土粉碎后形成碗的形态,在碗表面涂上釉料, 在高温下烤制,使碗表面像玻璃质一样。所以陶器制作技术虽然和人类的历史一样长，但据说瓷器的历史始于中国汉朝，大约只有2000多年。虽然现在在我们的生活中很常见,而且使用的是瓷器, 但当时瓷器制作技术才是高科技中的高科技。这是任何人都无法模仿的技术。

让我们简单地比较一下欧洲的情况。与欧洲相比,欧洲最早建立瓷器的是在18世纪初。而且当时以进口中国的瓷器为基础，经过反复的研究，直到18世纪初 才能确保制造瓷器的技术。简而言之，欧洲在中国第一次诞生瓷器的时候，大约1000年之后才能够掌握瓷器的生产技术。在当时来说，这真的是非常了不起的技术。



但是高丽可以生产瓷器，高丽主要生产的瓷器是高丽青瓷。青瓷就是瓷器。 从青瓷这句话中可以看出，它是蓝色的瓷器。青瓷同样最早是在中国制造的，高丽受中国影响能够生产青瓷。但是高丽生产的青瓷和中国的青瓷不同，具有高丽独特的色彩和美丽。到了11世纪，高丽青瓷开始呈现出高丽独有的造型特征，到了12世纪，高丽工匠们通过被称为比色的清澈青色的青瓷 和镶嵌技法的全世界唯一的制作方式，生产出高丽独有的美感的青瓷。

高丽青瓷的独创性、美丽性和优秀性在当时在中国大陆广为人知后，高丽青瓷开始作为宋朝等元朝贵族阶层的珍藏品受到瞩目，在民宅中广泛使用，大量高丽青瓷得以出口到中国。高丽接受了中国人发明的青瓷，高丽匠人以更具独创性和卓越的方式发展成更加美丽的艺术品。高丽青瓷在当时可以说是青瓷的原产地，在中国大陆尤其受到欢迎。

特别是在强调文治主义的宋朝，以贵族为中心，为收藏优秀的高丽青瓷付出了很多努力。北宋时代的著名诗人苏东坡 将高丽青瓷和高丽生产的纸张一起选为天下名牌。不仅如此,以使臣身份访问高丽的人徐兢 在高丽停留了约一个月,将自己所看到和听到的内容写成了《宣和奉使高丽图经》一书。徐兢在书中对高丽青瓷的翡色高度评价说:"高丽人称瓷器的蓝色为翡色, 但近年来制作技术变得精巧,颜色也变得更好。同样,宋朝时期的太平老人也在《袖中锦》一书中 称赞道:"高丽青瓷的翡色是天下第一的, 即使想模仿也模仿不了。"



因此，高丽青瓷逆向出口到中国，名声大噪。另外，宋代流行翡色纯青瓷，而到了12世纪中期以后，采用镶嵌技法的镶嵌青瓷开始流行，受到元代人的喜爱。 在这里稍微介绍一下高丽独有的独特制作技法镶嵌技法，首先以挖掘器皿表面的方式刻上图画或图案。然后在刻着的地方填满白色或红色等泥土后烤制的方式。这种镶嵌技法是高丽唯一独有的制作技法，是高丽独有的独创技术。这一技法反而传到了中国，甚至被借用。此后，高丽青瓷直到元朝正式干涉的13世纪初期为止，发展迅速，瞄准了高丽青瓷的全盛期 高丽青瓷在与中国的贸易中占据了很大一部分。

像这样，高丽青瓷通过交易大量传到了中国 直到现在，中国各地还在发掘高丽青瓷。特别是宋代和元代的海上贸易中心，现在的浙江省宁波、杭州一带 以及江苏省一带出土了很多。从三国时代开始就与韩半岛频繁交流的山东半岛和辽宁省 也出土了高丽青瓷。此外，包括中国的首都北京在内，河北省、吉林省 以及现在内陆地区的内蒙古、安徽省等地区也出土了高丽青瓷。甚至在台湾也出土了高丽青瓷。当然，这些中国地区出土的高丽青瓷 与韩国国内出土的高丽青瓷的规模相比，可以说是比较小的数字，但是考虑到在中国各地出土这一点，可以说高丽青瓷是当时在中国全境消费的一个事例，这将成为体现当时高丽青瓷影响力有多大的重要尺度。

高丽青瓷至今仍起到韩中交流的桥梁作用。特别是2013年杭州的南宋官窑博物馆 举办了高丽青瓷和中国磁技术传承交流特别展。在当时的特别展上，大量展示了在杭州附近发现的高丽镶嵌青瓷碎片，特别是用镶嵌青瓷制作的当时中国宋朝皇室的祭祀礼仪用物品，还有刻有皇帝夫人和皇帝居住的宫殿名称的碎片。可以说这是证明镶嵌青瓷被进口到宋朝皇室使用的事实的重要资料。

不仅如此，现在中国各地区的博物馆中，包括该地区出土的高丽青瓷在内，还有很多高丽青瓷在展出，因此受到了中国人的关注。 像这样，高丽青瓷虽然受到了中国青瓷的影响，但是开发了高丽独有的技术，以该技术为基础生产了当时最高水平的瓷器，反而成为了青瓷原产地中国最受喜爱的高丽时代最好的出口产品，可以说是展现高丽和中国的贸易以及当时文化交流的重要事例。为了帮助大家理解，我们准备了有关高丽青瓷的短视频。希望大家也能感受一下高丽青瓷的美丽。

旁白:我是什么呢？ 我是在10世纪以前制作的,在1300℃的热气中诞生, 穿着别人羡慕的淡蓝色。根据制作方法，种类也不同。是的，有着千年的我的翡色名字是高丽青瓷。夯实泥土，形成模样，放入图案，在窑中烤一次后涂上釉料，晾干后 放入窑中烤制而成，使高丽青瓷变得坚硬。青瓷起源于中国宋朝，但在高丽人的执著和热情中诞生了新的面貌。怎样才能显得更美丽呢。 如何才能制作出更出色的青瓷。就这样诞生的高丽青瓷的特点，在蓝天飞翔的鹤纹和柔软的腰部曲线，还有淡淡的翡色。 高丽人的创造力造就了世界史上的高丽青瓷。碗色碧绿，高丽人称翡色。近年来,其制作更加精细,色彩更加丰富。然后用高丽青瓷的另一个秘密，镶嵌技法 锐利的雕刻刀挖出花纹后，在其部分填充其他颜色的泥土水。画作栩栩如生，细致而流畅地表现出来，是高丽人的技术。没有重复相同的图案，而是在全景上设置了大的中心图案，并布置了水、鸟、岩石和人物，从而产生了与一个画幅相同的效果。等一下，名字很难吗？ 请务必记住,陶瓷的名字按照种类和技法、表现出的花纹和用途顺序, 仅凭名字就能知道陶瓷的所有信息。我不是单纯的陶瓷。 我是拥有韩国之美和独创性的千年翡色而自豪的高丽青瓷。

中国中的韩国 -高丽~朝鲜

8-4 朝鲜和中国关系

下面我们来了解一下朝鲜和中国的关系。首先，朝鲜是1392年由李成桂建立的王朝，与以佛教为国教的高丽不同，是彻底将性理学作为统治理念，反过来排斥佛教的国家。这种彻底的性理学基础秩序 在规定与推翻元朝后登场的明朝的关系上起到了绝对的作用。当然，在继承明朝登场的与清朝的关系中也会发挥重要作用。那么先来看一下朝鲜和明朝的关系吧。

高丽末期中国大陆于1368年由朱元璋建立明朝。北方的蒙古族所建立的元朝灭亡，恢复汉族的统治，复兴中国的传统文化。特别是明朝在恢复汉族传统儒教文化的同时,思想和政治也得到了很大的发展。因此，以性理学作为统治基础的朝鲜对明朝采取了事大外交。事大外交是指事大字小，即小国服务大国，大国爱护小国。孟子对事大字小说:"只有仁者，才能以大国服事小国，只有智慧者，才能以小国服事大国，而作为大国服事小国的人，是享受天理的人，作为小国服事大国的人，是害怕天理的人，喜欢天理的人，才能保全天下，
而害怕天理的人，才能保全国家。"像这样，朝鲜和明朝的关系是通过事大外交展开的，这是最大的特点。

但是,偶尔也会将事大外交与事大主义混为一谈,理解为没有朝鲜的自主性或主体性。但是从孟子的话中可以确认,所谓事大外交,无论如何都是为了民族保存的现实外交政策,与自主性和主体性并不矛盾。建国朝鲜的李成桂也在推翻高丽的契机，威化岛回军时期 说无法攻击明朝的四个理由。



第一个理由就是"以小易大",即"以小易大不可", 就是小国不能违背大国的意愿。因此,所谓朝鲜对明事大外交,最终是以当时的国际局势为基础, 作为维护国家安全的手段而选择的现实外交政策。朝鲜灵活应对从元朝变为明朝的中国中心国际秩序的变化，标榜以对明为中心的外交事大，这最终可以看作是当时新生王朝朝鲜为了自我保存 而采取的现实性应对措施。

朝鲜这种对明事大外交基本上与朝贡和册封的关系交织在一起。所谓朝贡，册封，是指明朝皇帝册封朝鲜国王时，朝鲜向明朝派遣使臣进行朝贡。朝鲜国王即位后必须得到明朝的批准，同时朝鲜必须使用明朝使用的年号，同时还要定期向明朝发送圣节使、千秋使、正朝使、冬至使，即定期向明朝发送使臣，除了这些定期使臣之外，还根据需要及时向明朝发送使臣，形成了形式上的政治从属关系。

当然，这并不意味着朝鲜受到了明朝的直接政治干涉。而且朝鲜通过明朝使行，可以与明朝进行贸易，也可以从明朝进口先进文物，因此朝鲜也有很多利益。不仅如此，属于使行团的朝鲜使臣们 通过与明朝人士的人员交流，可以进行多种文化交流。

此后，朝鲜和明朝的关系以1592年壬辰倭乱为起点发生了巨大变化。壬辰倭乱很多人应该都知道。当时日本侵略朝鲜后,朝鲜向明朝请求援军, 这场战争之后,再造之恩,明朝拯救了朝鲜, 即拯救了灭亡的朝鲜,重新建立了国家的恩惠, 对朝鲜的影响力比以前更大。



但是明朝也因为壬辰倭乱国力大幅衰退，当时明朝内部也因为很多政治问题、腐败问题等而处于混乱状态。所以到了17世纪初，统合女真族的努尔哈赤将建立后金国家。然后开始与大陆上的明朝作对。努尔哈赤的儿子皇太极，将国号改成清朝，与明朝展开激烈的战争。这时清朝对自称明朝忠实的诸侯国的朝鲜施加压力，试图将其拉入自己的势力范围。朝鲜对此进行抵抗后,1627年发生了丁卯胡乱,1636年发生了丙子胡乱,通过武力使朝鲜复属。1644年最终灭亡明朝，中国进入女真族的统治之下，朝鲜与清朝形成了新的事大关系。

但是明朝时期进行的事大外交和清朝时期进行的事大外交不同之处在于，如果说朝鲜对明朝的事大外交是自发性的，那么对清朝的事大外交是在清朝的压迫下进行的。就这样，朝鲜与轻视为夷狄的清朝延续了事大关系。但是朝鲜虽然两次动乱与清朝建立了君臣关系，但崇明拜清，即崇尚明朝、排斥清朝的意识 在明朝灭亡后也持续了相当长的时间。

这是因为正如前面所说，朝鲜认为清朝是蛮夷的国家，朝鲜自己继承了明朝，自称是小中华。当时朝鲜统治层的意识中，虽然国家灭亡了，但也要遵守大义的名分，即义气，这种极端的名分论 并不是单纯出于对明朝的事大意识，而是基于朝鲜统治层认为自己是小中华的思考。这样崇明拜清思想延续到了17世纪的北伐论。当时孝宗为了维护与明朝的义气，还曾计划攻击清朝，以报丙子胡乱之耻。当然会失败。换句话说，朝鲜在将清朝的史代视为现实的同时，对明朝的事大和对清朝的事大没有统一认识，长期坚持不承认清朝为中华的态度。

在这种情况下，朝鲜和清朝的使臣频繁地交流。从 1637 年到 1893 年，朝鲜在 256 年期间共向清朝派遣了 507 次使行团，再加上清朝派往朝鲜的敕使，可以看出两国接触的更多。如果通过被称为使行的使臣团交流进行人员交流，通过他们的往来进行相互文化交流,也会产生影响。

特别是两国学者之间进行了活跃的文化交流。现在的北京，当时的燕京有个叫流璃厂的地方。这里在当时也是清朝的学术和文化中心，所以朝鲜的使臣和知识分子作为使行团访问燕京时，经常会来到这里与清朝知识分子进行交流。流璃厂是朝鲜和清朝知识分子进行人文交流的场所。例如，流璃厂和一带的很多胡同都是朝鲜后期具有代表性的实学家洪大容、朴趾源、朴齐家、徐浩修、柳得恭等朝鲜北学派知识分子 与清朝文人笔谈交流诗文并展开自己思维的地方。因为语言不通，他们一边用笔谈进行对话，一边自由地交换相互关心的学术和文化、艺术乃至哲学等各种讨论，通过这些交流分享友情。

特别是两国知识分子的人文交流中，被称为洪大容的北学派知识分子之间的交流非常突出。洪大容在流璃厂附近留下了与清朝知识分子严诚、陆飞、潘庭均等知识分子 进行笔谈交流的《乾净隙笔谈》一书，在当时朝鲜知识分子社会引起了很大的反响。特别是洪大容和严诚之间的交流，在他们死后也延续了三代，成为了朝鲜和清朝之间文人交流的象征。甚至看《日下题襟金合集》这本书的话,严诚在临死前从盖着的被子里 拿出洪大容写给自己的信,拜托读一下,不停地流下了眼泪。除此之外,朝鲜的朴趾源、朴齐家、金正喜等知识分子还与当时清朝的著名文人进行了交流，他们互相影响,得以继续深入交流。

到了19世纪后期，由于西方列强侵略亚洲等原因，中华秩序开始崩溃，朝鲜和清朝的政治事大关系也随之中断，朝鲜摆脱了中华秩序的阴影。



中国中的韩国 -高丽~朝鲜

8-5 朝鲜使行团与韩中文化交流

那么，关于朝鲜，这个中国留下了哪些痕迹？这次让我们沿着朝鲜使行团之路走下去吧。2014年，大韩民国驻沈阳总领事馆为了增进韩国和中国两国的合作和友好关系，以朝鲜时代活跃的使行团交流为主题，举办了第一届使行团文化庆典。该活动包括两国使行团专家和学者参加的国际学术大会、音乐演出、使行团交流的记录展示等。而且得到了很多人的好评。第二年开幕的第二届文化庆典 升级为两国中央政府赞助的活动,不仅活动规模扩大，还增加了参加者亲自考察朝鲜使臣走过的道路的各种活动。

朝鲜时代有关使行团的活动此后也持续不断。例如,2017年作为韩中文化交流活动的一环，进行了探访中国丹东到沈阳的青少年使臣团项目，2018年和2019年,韩国和中国两国的大学生跟随朝鲜时代使行团的脚步，通过文化交流,提供了增进相互理解的契机。而且,在新冠肺炎肆虐的2020年11月，韩国驻沈阳总领事馆和辽宁省人民对外友好协会等 为了纪念两国使臣的往来历史,还举行了主题为"漫长的旅行路，无尽的友情"的展示会。朝鲜时代使行团的历史遗产 不仅给今天韩国和中国两国的友好关系带来了深深的震动 还起到了两国文化交流的重要桥梁作用。

那么，朝鲜时代使行团的形象如何，两国通过使行团的交流又如何呢？首先，根据朝鲜的中国观，朝鲜时代的使行团 可以分为明朝的朝天寺和清朝的燕行寺。如果说朝鲜的中国馆，那就是当时朝鲜 如何认识中国大陆的王朝。

首先，朝鲜认为明朝是中国的正统王朝，所以自发地建立了事大关系，站在臣子的立场上，因为是走向天子之国明朝，所以取名为朝天使。相反，清朝是蛮族建立的异族国家，朝鲜只是无可奈何地建立了事大关系，并不是朝鲜自发进行的事大，因此清朝时期的使行团认为只是去清朝首都燕京，所以才称之为燕行使。其中蕴含着对清朝不具备礼数的意思。

朝天使和燕行使都由定期派遣使臣的定期使行 和特别的事情发生时派遣使臣的临时使行组成。而且定期使行是在重要的节气、皇帝或皇后的生日等 按这些定期的日期派遣。一般一年会派遣四次使臣。1645年清朝迁都燕京后，清朝朝廷调整为每年统一一次定期使行。像这样,朝鲜通过派遣使行团,与明朝和清朝 维持了政治外交关系, 维持这种政治外交关系是派遣使行团的最基本、最重要的目的。

当然，朝鲜通过派遣使行团，不仅可以与中国进行朝贡贸易的经济交流，还可以通过使行团参与人员交流，进行多种文化交流。除此之外，使行还起到了收集当时国际局势等国家所需的 各种情报的重要通道作用。但使行团的各种目的中，尤其值得关注的 就是通过使行团进行两国的文化交流。当时朝鲜的使行团在首都可以停留40天 在清朝一般可以停留60天。在此期间,使行员除了基本要求的公共活动外, 还可以私下进行多种活动。

特别是，他们通过与中国学者的接触，虽然语言不通，通过笔谈交流，但可以进行多种形式的文化交流。最重要的是，他们通过与中国知识分子的交流拓宽了见识，代表性的北学派实学者湛轩洪大容 在燕京停留的62天时间里，有33天用于与清朝知识分子的交流，由此可见清朝知识分子和朝鲜使臣们的交流是多么活跃。

但是通过使行团进行的朝鲜和中国文化交流，根据当时的时代背景和朝鲜的中国观，在明朝和清朝呈现出稍微不同的性质。首先，朝鲜和明朝的文化交流深受建国初期朝鲜的情况和儒教的影响。以性理学为统治理念的朝鲜在建国初期通过与明朝的交流 确立儒教和性理学的体制理念，并以此为基础确立政治制度。

特别是朝鲜，重新整顿文物和制度，培养儒学官僚是最重要的事情，因此与明朝的文化交流也集中在这些方面，为了他们，必须从明朝进口儒教经典史书、五经、政治、法律、历史、医学甚至天文等书籍。例如，世宗8年即1426年，朝鲜向明朝提出了《四书大典》、《五经大典》、《性理大典》、《宋史》等书籍的要求。明朝顺应这一要求,将赠送包括《四书大典》和《五经大典》在内的《资治通鉴纲目》的书籍。像这样，朝鲜通过明朝使行主要致力于进口书籍，与明朝的文化交流也只能以史代为基础，以儒教为中心、以性理学为中心的交流。



但是明朝灭亡，清朝进入后，发生了各种变化。首先，正如前面所说，朝鲜的中国观发生了很大的变化。朝鲜认为清朝是蛮夷，所以在文化上反而认为朝鲜比清朝更优越。丁卯胡乱和丙子胡乱虽然经历了两次战争，认为自己是小中华的 以这种认识为基础，更加忽视了清朝的文化。

实际上,现在有很多关于燕行使的记录。从这些记录来看，从燕行回来的朝鲜很多知识分子无视清朝的文化。大家知道朝鲜时代代表性的实学家燕岩朴趾源吗？燕岩朴趾源留下了《热河日记》非常有名的旅行记录。《热河日记》是朴趾源在正祖4年即1780年经过燕京，到清朝皇帝的别墅热河拉旅行时写下的感想。朴趾源也在《热河日记》中写道:"清朝的文物如此繁盛，我们朝鲜的书生们怎么只寻找明朝,排斥清朝呢?“ 很好地展现了当时朝鲜的知识分子对清朝的认识。

两国的文化关系在18世纪以后逐渐加深。虽然这有很多因素，但首先西方学问和技术开始正式传入清朝，因此清朝开始发展实事求是，即强调探索真理的实学和考证学等，从而产生了新的学术风尚。通过燕行使，清朝的学术风气传到朝鲜，朝鲜也形成了新的学风。

特别是以受到清朝学术风气影响的洪大容、朴趾源、朴齐家、李德懋、柳得恭、朴珪寿等人为中心的实学派形成后，朝鲜的学术氛围也发生了很大的变化，而且随着这些实学派知识分子开始参与朝鲜的使行团，与清朝的文化交流也更加深入。而且之前也提到过，洪大容在燕京停留期间的一半左右 用于与清朝知识分子交流，除了洪大容以外，朴趾源、朴珪寿、朴齐家等实学派知识分子 以燕行使在清朝停留期间与很多清朝知识分子交流，建立了友情。随着燕行使的在燕京的活动增多，朝鲜和清朝的知识分子交流也自然而然地变得活跃起来。



他们主要见面的地方是外交的正式场所,除了朝鲜使馆以外，还有刚才提到的流璃厂。流璃厂是韩国的仁寺洞一样的地方，不仅是古董，书、书法相关的用品、书画、文房四宝、文房四宝、文房四宝就是纸笔、砚台、墨等等。作为这些东西的集散地，如果说是朝鲜的书生，就是至少想去一次的地方。因此,参加燕行使的知识分子一定会访问流璃厂，自然而然地以流璃厂为中心,形成了与清朝知识分子的交流。

到了18世纪后期，两国知识分子的交流成为了燕行使的日常风景 后面有秋史金正喜的作品叫做《岁寒图》这部《岁寒图》很好地展现了当时活跃的朝鲜和清朝知识分子交流的面貌。像这样,朝鲜和中国的文化交流在不同时期,在明朝和清朝分别呈现出不同的局面，特别是18世纪以后,随着各种国内外情况的变化，朝鲜的知识分子通过使行团与清朝的知识分子进行了深入的交流。因此可以说朝鲜的使行的途径就是文化交流之路。



中国中的韩国 -高丽~朝鲜

8-6 秋史金正喜与韩中文人交流

最后，让我们来谈谈朝鲜和清朝知识分子交流的象征一样 朝鲜知识分子秋史金正喜。金正喜作为朝鲜时代后期的人，以字写得好的名笔享誉天下。我想很多人应该都知道秋史金正喜。不仅是秋史金正喜，在文字、各种学问、诗和绘画等 艺术方面也展现了天赋，在金石学领域也留下了卓越的业绩。因此，当时与金正喜进行交流的清朝学者们将金正喜称为 "海东第一通儒" 意为精通儒学等多种学问的 朝鲜最高学者。

金正喜在1809年24岁时首次被列入燕京使，可以去燕京旅行，还可以通过使行团与清朝知识分子进行交流。金正喜受早年实学大师朴齐家的影响，原本就对清朝很感兴趣，因此非常积极地与清朝学者进行交流。金正喜作为燕行使，在清朝停留的60天期间，与当时清朝著名学者翁方纲见面，进行了交流。翁方纲这个人物也是在书法、文学、金石学等领域造诣很深的学者。金正喜和翁方纲的相遇也是通过金正喜的老师朴齐家的介绍才有可能实现的。金正喜访问燕京时,翁方纲的年龄已经接近80岁,但是对金正喜的学问和艺术素养深深感动,虽然只有两个月左右的时间,但两人却结下了师徒的缘分。金正喜回到朝鲜后，双方还互致信，进行了交流。

与翁方纲一起清朝的大学者阮元也与金正喜结缘。据说,阮元这个人物对比自己小22岁的金正喜的天才性和 较高的学术水平感到惊讶和高兴。而且金正喜和阮元也结下了师徒的缘分。据说,金正喜和阮元的交流直到完元去世为止,已经持续了近40年。还有评价认为，阮元对金正喜的人生以及哲学和艺术产生了很大的影响。



当然，除了翁方纲和阮元之外，清朝知识分子也想和金正喜交流。金正喜在燕京期间，为了见金正喜而来到金正喜家的清朝文人门庭若市。金正喜的作品中有一幅象征性的作品，充分体现了朝鲜和清朝知识分子是如何进行交流的。

这就是金正喜在去济州岛流放时,作为礼物送给 为自己献身的弟子兼翻译官李尙迪的"岁寒图" 这是用冬天也不会枯萎的松树和柏树表现弟子李尙迪的不变的义气的画。原来的"岁寒图"是长70厘米左右、宽23厘米左右的不那么大的画。但是弟子李尙迪在燕京出差时带着"岁寒图"去了。在平时关系很好的清朝知识分子主办的聚会上, 向清朝知识分子展示了"岁寒图“ 看到"岁寒图"的16名清朝知识分子，在画旁边留下了对"岁寒图"的感想。所以从金正喜开始的朝鲜和清朝的文化交流一直延续到了自己的弟子身上。最终得到他们的评价后，"岁寒图"从70cm变成了长度接近10m的大型画。可以了解清朝知识分子对金正喜作品的心意 和对金正喜的心意。现在被指定为180号国宝的金正喜的代表作之一。

金正喜在今天的韩国和中国的文化交流中仍然发挥着重要的桥梁作用。举几个例子。2019年6月,在中国首都北京,从韩中文化交流的角度出发, 举行了名为"秋史金正喜和清朝文人的对话展"的展示会。特别是2016年萨德问题以后急速冷却的韩中关系 重新恢复的时期举行该展览,从这一点来看,具有重大意义。而且在中国国内国立美术馆中 最具权威的中国美术馆进行展览，也可以说是充分说明在中国如何评价金正喜的事例。当时参观展览的人平均每天有5000人。据说两个月内共有30多万名中国人为了观看金正喜的作品而前往。

最后会看一张画和一段视频。这幅画名为"秋史东归图",讲述了金正喜离开清朝前, 清朝文人邀请金正喜送别时的情景。在"秋史东归图"的作品名中, "秋史"就是指金正喜。看这幅画的话, 坐在中间的人就是金正喜。再看图的话, 可以看到被清朝文人包围的金正喜。对于清朝文人来说, 与金正喜的会面是很有意义的。可以说, 金正喜离开燕京后分手, 充分体现了遗憾之情。正因为如此, 当时的余韵才得以留在画中。还有要一起看的视频是之前说过的金正喜的"岁寒图"的详细视频。看视频的话, 可以看到16位清朝知识分子写的观后感。

李水京:国宝第180号, 是旷世 的名作《岁寒图》。《岁寒图》是去世的孙世基先生从1970年代开始收藏的, 长子孙昌根先生珍藏着,在2020年没有任何条件捐赠了。聪明伶俐的名门家的子弟金正喜因反对势力安东金门的诬陷, 55岁时委屈地流放到济州岛。流放型中最严重的'絶海孤島围籬安置'。就是指在遥远的岛屿上,家人不能一起去,也不能出去,被处以监禁刑。在朝鲜时代流放并不罕见, 但没有期限。3年过去了, 金正喜还没有收到任何消息。反而不断有人上传要求对金正喜处以死刑的上诉。
在这种情况下,也有弟子一如既往地对待罪人金正喜。就是中文翻译官李尙迪。李尙迪一直把在中国也很难找到的书寄给济州的金正喜。书, 对金正喜意味着什么呢？

他总是在书中寻找学问和艺术的根源。另外，对于流放中的他来说，书是像抚慰孤独的朋友一样的存在。

金正喜把李尙迪的不变的义气写进孔子的《论语》中，名为'岁寒然后 知松栢之后凋'的著名句子,用画来称赞和表达。岁寒是指寒冬寒冷的天气。因此，这句话的意思是'直到严冬寒冷的天气，才知道松树和柏树不会枯萎'。在画左侧用纸连接方框的部分,用强烈而坚强的笔体详细地记录了为什么画这幅画。金正喜这个句子是如何用画来表达的呢？

有圆门的破旧房子左右立着两棵松树和两棵柏树。看起来像画得很简单的画吗？

仔细看的话,表现树干和叶子的干涩而细密的笔触会映入眼帘。用没有水气的干毛笔沾上浓墨重彩的墨汁,表现得很粗糙 。乍一看可能看起来很容易，但是操作干笔真的很难。这个笔法是金正喜经过长时间磨练后形成的笔力。金正喜找到了最适合的笔法传达干旱荒凉的岁寒，最寒冷的冬日气氛。

这幅画在朝鲜时代是罕见的,题目和制作动机非常明确。在画右侧写了《岁寒图》的题目，接着写了'先看一下吧，阮堂', 表明自己是为了李尙迪画的。这下面盖着'正喜'的印章。金正喜平时喜欢使用各种印章。《岁寒图》上也有4个印章。

除了刻有自己名字的'正喜'外,还有刻有号号的'阮堂'和'秋史'印章,还有写诗句的'长毋相忘', 其中最值得关注的是图片右下角的'长毋相忘'。是'永远不要忘记彼此'的意思。金正喜正是怀着这样的心情盖上了印章。像这样,金正喜为了传达自己的意图,用最恰当的题目、素材、笔法、印章缜密地完成了《岁寒图》。

这就是《岁寒图》被评为用图画表现意思和精神的文人画中最高的原因。李尙迪第七次去中国出差时, 把《岁寒图》带得很珍贵。并在平时关系很好的清朝文人主办的聚会上拿出《岁寒图》, 给大家看。参与了这个聚会,或者看过该画的16名清朝文人写下了感想。那些文章相当于岁寒图卷中的第三部分。金正喜送给弟子李尙迪的《岁寒图》之后李尙迪的弟子金炳善收藏

后来传给了他的儿子金俊学。金俊学为了纪念患病许久后痊愈,于1914年写下了'阮堂歲寒圖'一首诗。那张纸贴在金正喜画的《岁寒图》前面。30年后,岁寒图制作100年后的1944年,孙在馨从日本人藤冢治收回了《岁寒图》。光复后的1949年,孙在馨向代表当代的知识分子郑寅普、李始荣、吴世昌请求了《岁寒图》欣赏文章。《岁寒图》卷轴上有很多空隙。孙在馨应该想得到更多的文章吧。希望大家用自己的心来填满孙在馨没有填满的这个空间。



张英德教授: 那么整理一下今天学到的内容吧。高丽与中国宋朝和元朝多样交流了约500年，特别是通过接触两个不同民族的文化，也体验到了文化的多样性。中国浙江省宁波市复原了接待高丽使臣的高丽使馆。可以确认当时高丽活跃的对外关系和宋朝的高丽认识。如今，中国还保留着很多带有高丽名字的地名。可以说这是体现过去与高丽关系的痕迹，高丽青瓷作为当时高丽的最高贸易品，深受宋代统治阶层的喜爱。

朝鲜在大约500年的时间里与明朝和清朝进行了交流，以性理学为统治理念的朝鲜对中国的认识和关系根据朝鲜的中国观而有所不同。根据朝鲜的中国观而有所不同。朝鲜与明朝和清朝的关系是事大关系，定期、不定期地派遣使行团，明朝使行团被称为朝天寺，清朝使行团被称为燕行寺。朝鲜通过派遣使行团可以接触多种文化，通过人员交流可以积极进行文化交流。金正喜作为当时两国间人员交流的代表人物，通过使行团充分展现了文化交流的特征，对今天的韩中交流也产生了影响。非常感谢您今天也来听课。



기타학습요소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K학술확산연구센터 K-ACADEMIC DIFFUSION RESEARCH CENTER

〈퀴즈〉

1. 고려와 원나라의 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시오.

   1231년 몽골이 고려를 침입하였고, 고려는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면서까지 몽골에 치열하게 항쟁지만 1259년 고려는 결국 몽골과 강화하였고, 몽골은 1271년 원나라를 세우고, 고려의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한다.

2. 다음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원나라는 고려의 내정에 간섭하는 동안 왕족이나 귀족의 자제를 볼모로 삼아 원나라에 머물게 하였다.

   ② 원나라는 고려를 간섭하는 동안 고려의 지배계층을 비롯해 공녀와 호나관 등 많은 고려인들이 원나라로 유입되었다.

   ③ 원나라 사람들은 세련된 고려의 문화를 따라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고려양이라고 한다.

   ④ 원나라에서 고려로 귀국한 사람들은 원나라의 문화를 고려 사회에 전파하였는데 이를 통해 유행한 몽골의 문화를 몽고풍이라고 한다.

3. . 고려청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고려청자는 고려시대 융성했던 고려의 화려한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과 같은 존재이다.

   ② 청자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고려청자는 고려에서 생산한 푸른 빛깔의 도자기이다.

   ③ 11세기가 되면 고려청자는 고려만의 독자적인 조형적 특징을 보이기 시작한다.

   ④ 고려청자는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도자기이다.

   ⑤ 고려청자의 제작기법은 상감기법은 전세계 유일하게 고려에만 있었던 제작 기법이다.

4. 조선시대 조선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선은 명나라에 대해 사대 외교를 취한다.

   ② 조선의 대명 사대외교는 기본적으로 조공과 책봉이라는 관계로 얽혀있다.

   ③ 조선은 명나라 사행을 통해 명나라와 무여글 할 수 있었고, 명나라로부터 선진 문물을 수입할 수 있었다.

   ④ 조선은 두 번의 호란으로 청나라와 군신관계를 맺고, 명나라가 아닌 청나라를 숭배하게 되었다.

   ⑤ 1637년부터 1893년까지 조선은 256년에 걸쳐 총 507회의 사행단을 청나라에 파견하였다.

〈퀴즈〉

5. 다음 사행단에 대한 설명 중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시오.

조선시대 사행단은 조선의 중국관에 따라 명나라 때의 연행사(燕行使), 청나라 때의 조천사(朝天使)로 구분할 수 있다.

